



[5G 넥스트 스텝] 커넥티드카·AR·VR... 이동사 킬러콘텐츠가 5G 판도 좌우 02



Economy

코스피	2272.81 (0.00)	코스닥	808.89 (0.00)
금리 (우대예금)	2.10 (+0.01)	환율 (USD/원)	1115.90 (-7.70) (6일)

금융에도 소확행... '26주 펀돈적금' 등 짠테크 열풍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카카오뱅크)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도 국민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원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은산분리' 족쇄 풀릴까? 최종구 vs 참여연대 맞짱

금융위, 이달중 규제혁신 점검회의

이달 중 열릴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앞두고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았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가 완화될 지 기대감이 커졌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의 지분 보유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관련 법안의 처리는 2년 가까이 제자리에 머물면서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금융주력자를 내세운 '마이니'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취소됐던 부처 통합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달 중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설득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정치권 역시 오는 11일 여당 의원이 주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할 지 여부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최대 보유 지분도 10%까지만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KT의 지분율이 10%에 그친 것도 그래서다. KT가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도 지분율 한도 규정에 따라 다른 주주의 증자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 케이뱅크는 영입이 잘 될수록 자본확충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카카오뱅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카카오의 지분율은 10%(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의 지분을 가지고 증자에 적극 나서면서 자본 걱정은 덜었지만 임시방편이긴 마찬가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케이뱅크도 금융주력자를 내세우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IT기업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취지와 달리 기존 금융사의 모바일 채널로 전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 등 5개가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1 증액투자·AI로 재미 더한 '26주적금'에 24만명 가입

카카오뱅크, 젊은층 겨냥 소액·증액·단기에 초점 캐릭터 활용·SNS공유도 하나은행, 짠테크+AI 접목 '오늘은 얼마나? 적금' 선포

최근 펀돈을 활용한 '짠테크'가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특히 소액투자를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짠 테크란 '짠돌이'와 '재테크'의 합성어로, 적은 돈을 꾸준히 모아 목돈을 만드는 재테크를 의미한다. 난생처음 재테크에 도전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생활 속 '펀돈'을 활용해 저축하는 투자 방식이다. 특히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26주 적금'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26주적금 상품의 가입자는 지난 6일 기준 24만명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적금 가입자가 1000원, 2000원, 3000원 중 하나를 첫 주 납부금액으로 선택하고 매주 그 초기 투자 금액만큼 증액해 적

10원짜리 동전을 흔히 펀돈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단돈 '1원'만 모자라도 지하철을 탈 수 없다. 담뱃값이나 커피값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3000원씩 매일 저금해 연 5% 복리로 은행에 넣으면 30여 년 뒤 1억원이 된다. 세계적 갑부인 워런 버핏은 이런 훈

금하는 순차적금 방식이다.

예를들어 최초 입금금액을 1000원으로 설정하고 증액 저축시 6개월 원금은 35만 1000원에 이자 1275원, 최초 입금액 3000원으로 설정하고 증액 저축시 6개월 원금 105만 3000원에 이자 3827원이 합쳐진다.

이처럼 26주 적금 상품은 만기까지 적금을 완료해도 돌려받는 수익은 비교적 높지 않다. 금리도 연 1.8%로 높지 않은 편.

그럼에도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펀돈을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층을 겨냥한 짠테크와 카카오(KAKAO) 캐릭터를 선택, 적금 현황을 SNS 공유 등 '펀(Fun)테크'가 더해졌다는 특이점 때문이다.

올해 초부터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을 들고 있는 배민정(23) 씨는 "26주 적금은 저축 부담이 적어 학생도 아르바이트비용이나 용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며 "매주 소액을 모아 6개월 후 1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갖고 싶었던 물건을 산다든지 여행 비용을 모으는데 아주 용이하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커피 한 잔 값

수를 던졌다. "100달러를 버는 것보다 1달러를 먼저 아껴라." 불황의 시대에 '펀돈의 경제학'이 관심사가 됐다. 펀돈 적금, 용돈버는 앱이 알뜰족들에게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밑천으로 떠올랐다.

1천원씩 증액		3천원씩 증액	
만기 예상원금	351,000원	만기 예상원금	1,053,000원
1주차 입금액	1,000원	1주차 입금액	3,000원
2주차 입금액	2,000원	2주차 입금액	6,000원
3주차 입금액	3,000원	3주차 입금액	9,000원
...
26주차 입금액	26,000원	26주차 입금액	78,000원
만기 예상이자	(세전) 1,275원	만기 예상이자	(세전) 3,827원
비과세종합저축	합도조회	비과세종합저축	합도조회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은 1000·2000·3000원 중 하나를 선택해 초기 투자금액을 저축하고, 그 금액만큼 증액을 해서 26번 입금하는 순차 적금 방식의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보다 싼 금액으로 여행 등 작은 목표를 세워두고 저축하는 등 소확행의 따른 저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존 적금의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 등으로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만기가 26주 저금은 6개월로 기간이 짧고 금액도 적다는 점에서 부담되지 않는 재테크라는 점이 매력이다. 또 매주 납입을 하면 캐릭터 스탬프가 찍히는 재미, 그리고 이런 화면들을 소셜 메시지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얻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타 은행들도 비슷한 취지의 상품을 내놓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5월 짠테크와 대화형 인공지능 금융 서비스인 하이(HAI)뱅크의 편의성을 합친 '오늘은 얼마나? 적금'을 출시했다. 커피나 군것질, 담배 등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지출하는 비용을 아껴 매일매일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적금 상품이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

으로 월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루 적립 한도 1000원 이상 5만 원까지 매일 적립할 수 있다.

'오늘은 얼마나? 알람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일마다 1회씩 "목표를 위해 얼마나 저축하시겠어요?"라는 저축격려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 보낸 일일 저축격려 문자메시지에 '적금 별칭'과 '저축액'을 답장으로 보냄으로써 적금의 이체가 바로 완료되는 구조다.

신한은행도 지난 2016년 하루 3만원·월 최대 3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입금하고 한 달에 1회 돌려받는 입출금 통장 '한달애(愛) 저금통' 상품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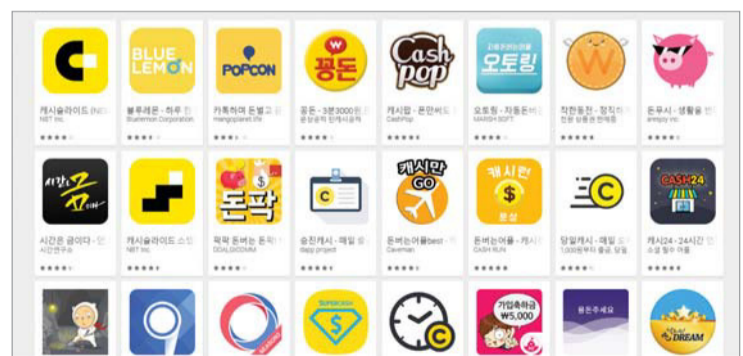
우리은행은 스마트폰 전용 '위비 짠테크 적금'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52주 짠플랜'은 미리 지정한 요일에 최초 이체금액을 적립하고 매주 1000원씩 자동 증액해 적립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2 스마트폰 앱만 사용해도 돈 번다

앱으로 돈버는 앱테크족 증가 걷기·퀴즈풀기 등 수백 가지

'짠테크'족이 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돈을 버는 앱테크(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를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펀돈을 벌 수 있어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에게 인기다. 소비내역 평가하기, 퀴즈 풀기, 걷기, 광고 시청 등 종류가 다양하며 방식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돈 버는 앱'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앱이 등장한다.

앱테크 관련 커뮤니티에선 돈 벌기 좋은 앱을 추천하거나 후기를 공유하고 앱테크를 통해 얻은 수익을 공개하는 등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돈 버는 앱'을 검색한 화면. /구서윤 기자

◆생활 금융 플랫폼 '핀크'

핀크는 횡수 제한과 수수료 없이 쉽고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의 수입·지출 분석 등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이자처럼 핀크계좌 충전금액에 대해 연 1.5%의 캐시백이 제공되며 하나은행 계좌 보유자는 앱 내에서 간편하게 핀크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또 'AI핀고' 소비평가를 하면 평가 1건당 1원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루 최대 10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소비평가를 연속으로 7일 할 경우 10원, 한 달 연속으로 사용할 경우 500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퀴즈 풀고 돈 버는 '잼라이브'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운

영하는 실시간 퀴즈쇼 앱이다. 매일 진행되는 퀴즈 라이브쇼를 통해 상금을 얻을 수 있다. 정해진 시간에 진행자가 등장해 문제를 출제한다. 채팅창에서는 실시간 대화가 이뤄진다. 12문제를 모두 맞춘 최종 우승자들이 상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일정 금액을 채우면 출금할 수 있다.

◆걷는 만큼 돈 버는 '캐시워크' 사용자 걸음 수에 비례해 캐시로 보상하는 만보기 앱으로 앱을 설치하고 걷기만 하면 자동으로 100걸음 당 1원씩, 하루 최대 1만 걸음(100원)까지 포인트 적립 가능하다.

◆잠금화면 밀어 돈 버는 '캐시슬라이드' 스마트폰의 잠금화면에 뜨는 광고를 옆으로 밀어 해제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앱이다. 잠금화면을 좌우로 밀 때마다 광고에 따라 1~5원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추천인 등록 시 500원 적립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커넥티드카·AR·VR... 이통사 킬러콘텐츠가 5G 판도 좌우

5G 넥스트 스텝

(下) 서비스 발굴

이통업계, 5G시대 BM찾기 고심
SKT, 자율주행차 플랫폼 주력
KT, VR·AR 기술 95%로 확대
LGU+, 지능형 CCTV 등 개발

내년 5G가 상용화되면, 일상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5G로 인해 일상생활에 녹아들 체감 서비스는 곧 이동통신사들의 '수익성'으로 연계된다. 5G 통신을 이용할 만한 데이터 사용료를 높이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야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막대한 투자비를 거두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도 5G 시대 '킬러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아예 콘텐츠 사업자를 자처하고 있다.

◆이통사, 자율차·실감형미디어 등 서비스 발굴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5G 상용화를 앞둔 이동통신 3사는 5G 시대의 비즈니스모델(BM)을 찾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5G 네트워크가 구축돼도 이를 이용해 즐길 콘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3사는 망 구축과 더불어 5G 관련 서비스·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LG유플러스 직원들이 5G 체험관에서 지능형CCTV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야구장, 서울광장, 자율주행실증도시 등 다양한 장소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 개관한 'T.um(티움)'은 5G로 이뤄진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총망라해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총 514평 규모의 전시관에서는 ▲실감형 미디어를 통한 VR 쇼핑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하이퍼루프 등 30년 후 미래 체험 가능하다. SK텔레콤이 그리는 5G 시대의 '밀그림'인 셈이다.

SK텔레콤이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는 자율주행차다. 전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020년 1890억달러에서 2035년 1조1520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자율주행차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체로, 초저지연의 5G 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11월 5G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인 이후 지난 2월에는 경기도 화성 'K-시티'에서 복수의 5G 자율주행차가 서로 통신하며 운행하는 시연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엔비디아와도 손잡고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3D 초정밀 지도(HD Map) 제작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차량 통신(V2X 등) ▲자율주행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추진기도 했다.

KT는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을 '킬러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지난해 기준 1800억원인 실감형미디어 시장을 1조원까지 키우고, 미국 대비 79% 수준인 VR·AR 기술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5G 킬러콘텐츠로 꼽히는 VR·AR 시장은 그간 콘텐츠와 핵심 기술이 부재하고 관련 법규가 모호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VR·AR 시장 규모는 1800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79%, 기술 격차도 2.2년 뒤쳐졌다. KT는 연내 50억 규모 정도의 VR·AR 전용 펀드 조성 등 콘텐츠 투자를 진행해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기반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연초에 원격제어 드라이브, 지능형 CCTV, 5G 생중계, 8K VR(초고화질 가상현실 영상), 스마트 드론, FWA(UHD 무선 IPTV) 등 6대 5G 핵심 서비스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G 시대가 다가오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는 고화질 비디오, 기업 간 거래(B2B)는 원격제어와 영상인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인식 높여야'...5G 마케팅도 '시동'

5G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5G 마케팅도 시동을 걸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자사 5G 브랜드 '5GX'를 유튜브, TV 광고 등을 통해 공개했다. 5GX는 차세대 네트워크인 5G가 산업·경제·일상 모든 영역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생활 혁신을 이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고객들이 5G에 대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고객 눈높이에 맞춰 5G를 소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가상현실기술과 연결한 '5GX VR', 공장 자동화와 연결한 '5GX 팩토리' 등으로 5GX 브랜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또한 자사 5G 브랜드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5G 시작' 등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고 KT 위즈파크, 월드컵 거리응원 등의 행사에서 체험형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들에게 5G를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8월 열리는 '제18회 아시안게임'을 통해 한국의 5G를 알리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이제까지는 전체 커버리지로 넓게 망을 구축했다면 5G 시대에는 서비스 대상이 사람 뿐 아니라 사물, 로봇 등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각 서비스별로 특화된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세대 이동통신에서는 이동통신사 회사 위주로 속도 경쟁이 주력이었다면 5G 시대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여야 한다"며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빠른 속도가 주력인 VR·AR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5G 네트워크의 초(超)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형상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JY, 인도 출국... 文 대통령과 '첫 만남'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석방 후 첫 공개일정 인도 현지 신공장 준공식 참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8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인도로 출국했다. 9일로 예정된 인도 현지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새 휴대폰 생산 거점인 인도의 노이다 공장을 24만㎡ 규모로 증설하기 시작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0억여위(약 7985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는

인도 국민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이번 준공식 참석이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난 이후 사실상 첫번째 공개 일정이다.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말 유럽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5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지난달 홍콩과 일본에 잇따라 방문했으며 이번 인도 출국은 4번째 해외 출장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도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참석 외에 다른 현지 일정은 없으며, 귀국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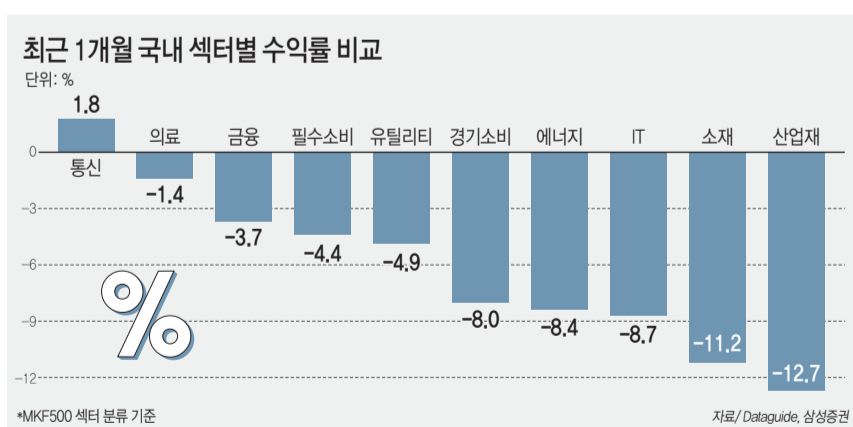
美中 무역전쟁 격화... 주가 출렁일땐 우량 종목에 관심을

전세계 증시 불확실성 지속될 듯 낙폭 큰 종목 중심 저가매수 추천

미국이 6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한데 이어 중국도 맞불 관세를 부여하며 전 세계가 우려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국내 증시는 당분간 조정장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무역분쟁은 투자 심리를 펀더멘탈(기초체력)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낙폭이 과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에 나서라는 것을 추천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의 관세 부과했다.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주 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 해관(세관)총서는 미국보다 1분 늦은 낮 12시1분(현지시간) 보복관세를 발표시켰다. 중국은 앞



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34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 부과를 경고해왔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동일한 규모의 화학공업품과 의료설비, 에너지 제품 등에 보복관세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어 이날 늦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공개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투자자들은 긴장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출 5737억 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 달러로 대중 의존도가 24.8%에 달한다. 무역전쟁의 당사국인 중국에 상당량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2분기 상장사 실적도 좋지 못하다. KB증권에 따르면 2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52조4000억원, 순이익은 37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로는 전년대비 각각 8.6%, 2.6% 증가한 수준이고, 전분기 대비 2.6%, 3.1% 늘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지난 1분기 실적이 다소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2분기 성장률도 비슷한 수준이다"면서 "2분기 실적시즌도 지수를 끌어올릴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개별종목 대응이 적합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가가 저점에 도달했다고 판단. 낙폭이 과도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매수에 나서 것을 조언한다.

서정훈 삼성증권 공인재무분석사(CFA)는 "(미중 간 보복관세 조치에도) 시장 반응은 되려 차분했다.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했고, 최근 무역분쟁의 프록시 역할을 담당중인 위안화 역시 절상으로 반전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도 골디락스 성격의 고용지표를 동력으로 견조한 상승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안정된

시장 분위기는 이제 장기전에 대비하는 태세로 전환됐음을 예고한다"면서 "시장의 관심은 관세와 같은 직접적 문제에서 보다 장기적 합의점과 펀더멘탈 이슈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중론도 만만찮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만큼 트럼프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전쟁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시킬 것이라 우려에서다. 세계 경제 상황도 우호적이지 않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무역분쟁 이슈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향해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이슈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다"면서 11월까지 전 세계 증시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어 그는 "현재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배 이하로 저가 매력 부각돼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유동성 축소가 이어지고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늘어나는 중국의 기업부채,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 점차 시장의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손영식 기자 sonumji301@

1468조 가계부채... 놔두면 '경제뇌관' 조이면 '소비위축'

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

(3) 김동연 경제팀의 딜레마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율 160% 금융자산 부채 비율 46%로 올라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 2배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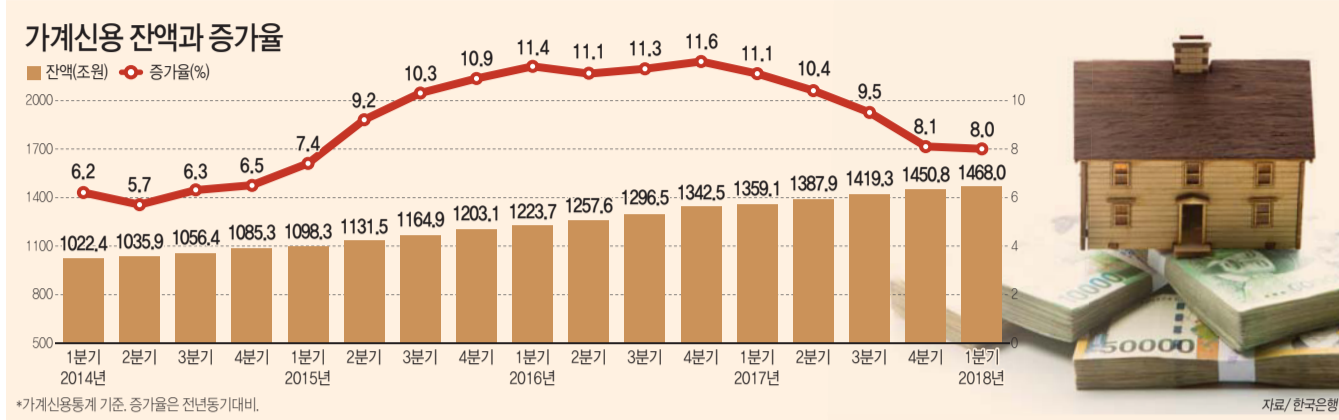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절대적인 부채 규모가 느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경기가 좋아 빚만큼 소득도 늘어난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문제는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빚만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30%대였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60%까지 치솟았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마냥 조이자고 나설 수도 없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고, 부채를 디딤돌 삼아 뛰어버린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충격을 줄 수도 있다.

◆1468조 가계부채, 놔두면 경제뇌관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14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2010~2014년 중 분기 평균인 7.1%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나 자산 대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더 과파르다.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양도 많지만 질도 나빠졌단 얘기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 1분기 132.7%에서 2015년 3분기 140.2%, 2015년 3분기 150.5%, 2018년 1분기 160.1%로 뛰었다.

금융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5년 1분기 43.9%에서 2016년 1분기 44.6%, 2018년 1분기 46.0%로 높아졌다.

최근 몇 년 가계부채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다보니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더 높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이 늘어난 것도 문제다.

신용대출 증가율은 2017년 3분기 9.

5%, 2017년 4분기 10.8%, 2018년 1분기 11.8%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높아도 고소득 차주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 단계에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역으로 우량 차주가 왜 신용대출을 늘리는 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대부분 50대 이상의 은퇴 직전 이거나 영입직 및 전문직에 종사해 30~40대 상용근로자 대비 미래 소득의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4월까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규모는 8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에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

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해 '핀셋'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것도 그래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경착륙엔 소비위축

가계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자산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소비를 늘리는 역할을 한다. 가계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해서 마냥 조이기만 할 수도 없는 이유다.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내수가 소비

위축에 침체로 갈수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강력한 총량규제가 아닌 '연착륙'을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다.

금리인상도 가계부채 연착륙에 걸림돌이다. 오른 대출금리에 늘어난 이자부담은 결국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한다. 특히 취약차주에게 금리인상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은 그대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 이상인 위험가구의 비중은 전체 부채가구의 11.6%다. 이들 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2017년 총 금융부채의 21.2%에 달한다.

원리금상환부담이 크고,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능력도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기준 부채가구의 3.1%다. 대출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200bp 상승할 때 고위험가구 비중은 2017년 3.1%에서 각각 3.5%, 4.2%로 증가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금리 상승시 가구의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가구로의 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저소득층인 소득 2~3분위 부채가구 중에서 고위험가구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회사채 발행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들

알고보니 투자재원 아닌 '빚 상환자금'

6월 회사채 수요예측 미달액 '0원'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 자금조달 투자 저조에 내수부진 장기화 우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발행물량도 세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 운영자금과 차환 용도의 회사채 발행이라는 점에서 고용 확대 등 거시경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한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6월 회사채 수요예측 금액은 1조5600억원이었다. 미달액(수요예측액-밴드포함액) '0'원으로 미달률은 0%를 기록했다.

초과액(밴드포함액-수요예측액)은 4조630억원에 달했다. 초과율은 260.4%다.

발행 규모는 4~5월 대비 감소했으나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발행시장 강세가 지속됐다.

등급별로 AA급에서 초과율은 265.6%로 1~5월 평균 수준(268.9%)을 유지했다. 특히 신세계는 모집액 대비 6배 이상의 오버부킹을 기록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고, 2년 만에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 포스코는 모집액 대비 5배 이상의 오버부킹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다.

A급에서는 초과율 237.5%로 1~5월 평균(283.7%) 대비 하락했으나, 높은 수준의 초과율로 발행을 이어갔다. BBB급에서는 초과율 247.1%로 1~5월 평균(227.4%) 대비 상승했다. 특히 한화건설이 BBB급을 극복하고 수요예측에 성공했다.

<회사채 수요예측 현황 (2018.06.01~2018.06.30)>

종목명	신용등급	수요예측일	수요예측	발행확정
맥쿼리인프라2-1	AA0	2018-06-01	1,000	1,000
맥쿼리인프라2-2	AA0	2018-06-01	1,000	1,000
KB증권35	AA0	2018-06-04	2,500	2,500
한화건설96	BBB+	2018-06-05	500	740
현대다이모스38-1	A+	2018-06-05	700	700
현대다이모스38-2	A+	2018-06-05	300	300
오케이캐피탈277	BBB+	2018-06-19	200	330
사조산업51-1	A-	2018-06-21	200	200
사조산업51-2	A-	2018-06-21	100	200
S-Oil53-1	AA+	2018-06-25	1,000	1,100
S-Oil53-2	AA+	2018-06-25	1,000	1,100
S-Oil53-3	AA+	2018-06-25	500	800
휴비스16	A-	2018-06-26	300	500
롯데하이마트6	AA-	2018-06-27	1,200	1,800
다우기술2	A0	2018-06-28	800	1,500
신세계133-1	AA0	2018-06-28	300	300
신세계133-2	AA0	2018-06-28	1,000	1,800
포스코308-1	AA+	2018-06-27	1,000	1,500
포스코308-2	AA+	2018-06-27	2,000	3,500

/자료=Freebo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신한금융투자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확대'는 신규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라기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선제적인 자금 조달로 풀이된다. 매년 하반기 회사채 발행시장이 위축된다는 점을 깨달은 기업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무역 전쟁 이슈 등을 우려해 상반기에 자금 조달에 나선 것이다.

실제 2018년 들어 조달목적 비중은 변했다. 운영목적 발행 비중(5월 말 기준 39%)은 줄고 차환목적 발행 비중(47.9%)은 증가하고 있다. 4년 만이다. 이는 발행사들의 선발행 수요는 마무리가

됐다는 것이고, 차환에만 대응하는 발행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기업 투자가 쪼그라들면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2% 감소했다. 기계류 투자 증가율이 0.2%로 전월(3%)보다 큰 폭으로 꺾인 데다 운송장비 투자 증가율이 11% 감소한 탓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설비투자 감소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2015년 3~5월 이후 3년 만이다. /김문호 기자 kmh@

中 더블스타서 6463억 납입완료 금호타이어, R&D·영업망 강화

더블스타, 금타 지분 45% 보유 채권단 지분을 23.1%로 내려가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이 6일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아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로부터의 자본 유치를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에 드라이브를 건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4월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신주인수 계약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더블스타는 6일 제3차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금 6463억원을 금호타이어에 납입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1억2927만 신주를 인수해 4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이전까지 42%를 보유했던 채권단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23.1%로 내려갔다.

또 금호타이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 서울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더블스타 차이원철 회장과 장원화 CFO를 기타 비상무이사(비상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더블스타가 중국 지리자동차와 볼보의 사례와 같은 독립경영을 보장한 만큼 금호타이어는 현 체제 그대로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날 사외이사로 채양기 전 현대자동차 경영기획담당 사장,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최흥업 조선대 교수, 김종길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 4명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의 등기이사는 종전 5명에서 사내 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 9명이 되었다.

김종호 금호타이어 회장은 "금호타이어는 대주주로 참여하는 더블스타와 향후 연구개발, 경영, 영업 등 시너지를 높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지난 해부터 진

행해왔던 매각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본격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금호타이어는 더블스타와 함께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시너지를 창출하여 '글로벌 10위권 진입'이라는 성장 로드맵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번에 투입된 자금을 고스란히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국내 및 해외공장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연구개발(R&D)을 확대할 예정이며 영업 및 마케팅 활동도 강화한다. 국내외 시장에서 승용차용 타이어는 금호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더블스타로 나누어 제품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며, 더블스타의 중국 내 영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국 내 더블스타의 대리점 숫자는 4500개로 금호타이어의 1400개 국내 대리점보다 훨씬 앞선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공장 시설을 개선하여 가동률을 높인 다음 더블스타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향후 중국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하여 실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

금호석유화학

스타일 대조적인 금호家 형제, 경영성적 희비

금호아시아나



‘꼼꼼 내실’ 박찬구

실적 고공행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경영성적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형인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인수 실패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은 주력기업인 금호석유화학의 실적반등으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외형 중시’ 박삼구

악재 겹쳐 고전

◆수령에 빠진 박삼구 회장

최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실패 후 발생하는 후폭풍은 2002년 9월 그룹 회장직에 오른 뒤 잇따라 진행된 무리한 인수·합병의 후유증으로 보인다. 과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당시 주변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박 회장은 앞만 보고 달려갔다. 당시 잘못된 판단으로 발생한 인수 여파를 아직도 이겨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초부터 그룹 재건을 위해 구조조정으로 매각했던 금호타이어 인수를 목표로 삼았지만 실패했다. 금호홀딩스와 금호고속 합병으로 그룹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를 위해 동원된 계열사들의 피로감은 높아졌고 경영실적 또한 부진했다.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 역시 실적 부진 속에 무리한 자금조달로 부채비율이 치솟는 등 재무부담이 커졌다. 박 회장은 이에 올해부터 내실에 집중하며 운수·건설·항공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삼각축

으로 그룹을 새롭게 꾸려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쉽게 끊지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또 올해 연초에는 박 회장이 참여했던 승무원 격려 행사에서 악수, 포옹, 반말 등의 행동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룹 총수의 리스크까지 떠안게 됐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 리스크를 아시아나항공이 떠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불거진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아시아나 직원들이 거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부족 사태의 경우 박 회장이 무리하게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기내식 업체를 변경하다 생긴 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박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악순환 고리에 총수 리스크까지 아시아나항공 부채비율 상당수준

금호석유화학

페놀체인·NB라텍스 ‘깜짝실적’ 고무부문서 압도적 실적 모멘텀

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에 승무원, 승객까지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얼굴인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졌다. 내년에도 도입되는 IFRS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를 갚기 위해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조원 상당의 금호터미널을 아시아나항공에서 지주사로 2000억원의 헐값에 인수했다. 최근에는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을 4500억원에

매각해 부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구의 금호석화 ‘승승장구’… 2Q 영업익 1500억원대 전망

반면, 박찬구 회장이 거느리고 있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 금호석유화학은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인수 합병 실패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형 박삼구 회장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페놀체인과 특수고무 호조로 2분기 ‘깜짝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분기 165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올 2분기에도 약 1500억대의 영업이익이 전망된다.

금호석유화학의 이같은 실적은 페놀유도체와 합성고무인 NB라텍스가 견인하고 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2분기는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성장달성이 예상된다”며 “전방 폴리카보네이트의 초강세 지속 및 증설에 따라 BPA마진 또한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석유

화학의 실적 호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고무부문에서 압도적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페놀유도체는 지난 4월 금호석화의 100% 자회사가 된 금호피엔비화학의 주력 제품이다. 페놀유도체 부문에 속하는 BPA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핵심 원료로, 휴대전화와 가전제품 외관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인다.

페놀유도체 가격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PC 생산이 급확대되면서 수요 또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천연라텍스를 대체하며 매년 수요가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NB라텍스의 전망도 밝다.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울산 고무공장 NB라텍스 생산능력을 기존 연산 40만톤에서 55만톤으로 확대하는 증설에 돌입하기도 했다. 금호석유화학의 NB라텍스는 애플 가법지만 쉽게 파손되지 않는 의료용 장갑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양성운·김유진 기자 ysw@metroseoul.co.kr

KT엠하우스 ‘기프트쇼’에 블록체인 적용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 도입

KT 엠하우스가 8일 자사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트쇼에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프트쇼 포인트란 기프트쇼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다. 포인트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미리 충전하거나 회원 등급에 따른 리워드 적립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등으로 제공된다.

이번에 적용된 KT 블록체인 기술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단점인 거래 급증에 따른 속도 저하를 개선했다. 거래량이 늘어나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분산 원장을 활용한 포인트 부여 내역의 위변조 방지와 PKI 인증 및 전자서명을 통한 해킹 위험 차단 등 보안이 강화되었다.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거래 및 결제 데이터 검증과 대사 없이도 자동 정산이 가능하다. 포인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 인력과 인프라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KT 엠하우스는 자사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기프트쇼에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시스템을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KT

도입으로 속도와 보안, 비용 세 가지 측면의 효과가 극대화됐다.

이번 상용화로 포인트 거래 규모와 범위의 확장과 동반해 증가할 수 밖에 없었던 정산 프로세스 등의 운영 리소스를 절감할 수 있다. 이후 ▲회원 간 포인트 주고 받기 ▲외부 포인트와의 연동 ▲모바일 상품권의 포인트 환전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직결제 ▲생체인증 및 보안 키보드 기반 안전결제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기대된다.

/안병도 기자

트윈워시 ‘3주년’… 신개념 세탁문화 확대

LG전자

여전히 높은 인기 지속… 저변 넓혀

LG전자는 3년 전에 출시한 트윈워시가 높은 인기를 이어가며 신개념 세탁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LG전자가 국내에 판매한 트윈워시는 매출 기준으로 LG드림세탁기의 절반에 육박한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드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세탁기인 미니워시를 결합한 트윈워시를 국내에 선보였다. 출시 3년 만에 트윈워시가 제시한 새로운 세탁문화가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트윈워시의 인기는 LG 생활가전의 독보적인 모듈러 디자인에서 비롯된 탁월한 호환성 덕분이다. 트롬 세탁기와 건조기는 동일한 사이즈의 외관 모듈을 사용한다. 고객들은 미니워시만 구매하면 드림세탁기나 건조기와 결합해 트윈워시로 사용할 수 있다. 트롬 건조기 하



단에 미니워시를 결합해 사용하는 고객도 지난해보다 두 배 늘었다.

LG전자는 기존 2kg 및 3.5kg 용량에 더해 최근 4kg 용량의 미니워시까지 선보이며 트윈워시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LG전자는 한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트윈워시를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선보였으며 출시 국가는 80개국을 넘어섰다.

트윈워시는 세탁기 두 대를 하나로 만든 ‘원조’ 제품이다. 고객은 세탁기 두 대 가운데 하나만 사용하거나 동시에 두 대를 사용할 수 있어 분리·동시세탁을 통해 공간·시간절약 등이 가능하다.

트윈워시가 탑재한 기술력은 최고 수준이다.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 충격흡

수장치에서 착안한 진동저감기술이다. LG전자가 트윈워시를 선보인 지 3년이 지났지만 세탁기의 진동이 가장 커지는 탈수코스가 상·하단세탁기에서 동시에 가능한 제품은 트윈워시가 유일하다.

LG전자가 지난 20년 간 발전시킨 인버터 DD모터도 강점이다. LG전자는 유럽 최고의 규격인증기관인 독일전기기술자협회로부터 인버터 DD모터의 22년 수명을 인증받았다. 각국 소비자잡지들은 인버터DD모터를 탑재한 LG세탁기를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

LG전자는 트윈워시 출시 3주년을 맞아 6일부터 23일까지 LG 트롬 트윈워시 출시 3주년 기념 고객사랑 특별전을 진행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티웨이항공, 日 규슈 노선 5개 특가 이벤트

오늘 오전 10시부터 22일까지

티웨이항공은 일본 규슈 5개 노선 특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가 이벤트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22일까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티웨이항공이 운영하는 5개 규슈(인천~후쿠오카, 대구~후쿠오카, 인천~구마모

토, 인천~사가, 인천~오이타) 노선이다.

국제선 편도 총액임금(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후쿠오카 4만 7000원부터 ▲사가 5만 5000원부터 ▲오이타 5만 9000원부터 ▲구마모토 6만 2000원부터다. 탑승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잠금화면 광고 보고 요금할인 받자!”



모델들이 LG플러스의 ‘U+잠금화면’ 앱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LG플러스

LG플러스 ‘U+잠금화면’ 앱 출시

LG플러스는 잠금화면 광고보기 적립금으로 통신요금 할인 또는 데이터 상품권 충전이 가능한 ‘U+잠금화면’ 앱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할인·결제·적립 통합 서비스 ‘U+멤버스’ 앱에서 잠금화면 기능을 분리해 선보이는 U+잠금화면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LG유플러스 개인명의 고객이라면 누구나 앱을 설치해 적립금을 쌓을 수 있다.

고객은 휴대폰 잠금화면에 노출된 광고를 슬라이딩해 시청하면 1~2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 외에도 U+멤버스 앱 내 ‘적립금 모으기’ 메뉴에서 광고 참여를 통해 포인트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다. 10포인트 이상 적립 시 매월 말 통신요금으로 자동 납부되고, 1000포인트 이상 적립된 포인트는 수시로 U+데이터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김민 기자 silkni@

LG전자의 미운오리 스마트폰, 5G 날개달고 백조되나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에도 MC사업부는 1300억 적자 전망 5G·폴더를 내세우며 도약 노력

LG전자가 역대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모두 최대치를 기록한 2분기 잠정실적을 지난 6일 발표했다.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활가전과 TV수신기 부분이 실적을 견인했으며 스마트폰을 다루는 MC사업부만 큰 폭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분기째 영업적자를 앞두고 있는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언제쯤 흑자를 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15조177억 원, 영업이익 771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액과 30조1407억 원에 영업이익 1조8788억 원이다. 생활가전(H&



LG전자가 7월 6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35 ThinQ를 이동통신 3사와 자급제 채널을 통해 국내시장에 출시했다. /LG전자

A) 사업본부가 영업이익 5000억원, TV수신기 부문(HE) 사업본부가 영업이익 4000억원 내외로 관측된다.

증권업계에서는 모바일 부문(MC)사업본부는 1300억~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의 부문별 실적을 긴 호흡으로 살펴보면 생활가전 부문이 꾸준히 우수한 이익을 내주고 있고, 최근 OLED TV의 성공으로 TV수신기 부문이 부쩍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에어컨과 에너지 부문(AE)이 소폭 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 MC

사업부가 줄곧 전체 이익을 크게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만일 재무관리자 입장에서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LG전자의 이익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돈이 안되는 MC사업부를 없애고 남은 인력과 설비를 다른 사업부로 분산시키면 된다. 일본 소니의 경우 몇 년 전 최고경영자가 적자투성이의 스마트폰 사업철수를 고려하는 메시지를 내보낸 적이 있다. LG전자 MC사업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일단 MC사업부는 신제품을 출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지난 6일 LG V35 씽큐를 출시했다. 2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2조8500억원이다. 신제품 출시 효과에 매출액 자체는 약간 늘어났지만 마케팅 비용도 그에 맞춰 늘어났기에 영업이익자는 줄지 않았다. G7 씽큐 판매량은 지난달 18일 정식 출시 이후 한 달간 약 9만8000대 수준이며 일 평균 판매량은 약 3000대 정도로 추정된다.

LG전자에게 스마트폰 사업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지만 상징적 의미 때문에 쉽게

계 접을 수도 없는 부분이다. LG전자는 그룹 내에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센서 등 스마트폰 핵심부품 원천기술을 가진 몇 안되는 업체다.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자사 가전제품과 연결성도 만들어야 하고, 그룹 내 부품 업체와의 시너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천덕꾸러기 내지는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LG 스마트폰 사업은 언제쯤 '백조'가 될 수 있을까. 업계 관계자는 이제 막 시작된 5G 네트워크를 도약의 기회로 꼽는다. 실제로 LG전자는 2007~2008년 초 콜릿폰의 성공으로 영업이익을 1년만에 46.2% 끌어올렸고 글로벌 점유율에서 노키아, 삼성에 이어 3위에 오른 적도 있다.

업계전문가는 "5G 기반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여기에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이 결합되면 기술격차가 확실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면서 "여기에 LG전자가 우수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브랜드 이미지와 판매량 양쪽을 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군더더기 빼고 'SUV 강점'만 모았다



볼보자동차 '더 뉴 XC40'

안전성·편의성·실용성 강화
최고출력 190마력·4620만원~



볼보자동차 더 뉴 XC40 주행 모습.



볼보자동차 더 뉴 XC40 실내모습.

볼보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막내 XC40의 인기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출시된 XC60과 플래그십 모델인 XC90이 국내서 흥행몰이에 나선 가운데 볼보의 SUV 라인업을 완성하는 막내 XC40도 사전계약 1000대를 넘어 서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최근 볼보가 국내 시장에 출시한 XC40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장점을 알아봤다. 시승 코스는 경기도 남양주를 출발해 춘천, 가평, 서울 반포한강공원까지 주행하는 약 240km로, 도심과 고속도로, 와인딩 구간 등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었다.

◆컴팩트 SUV의 매력 '흠뻑'

그동안 큰 차체와 여유로운 실내공간의 차를 만들어온 볼보가 변했다. 볼보 XC40의 외형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크기를 갖추고 있다. 차량 길이는 4425mm로 볼보 역사상 최초의 소형 SUV 차량이다. 전면 헤드램프는 신하 속 토르의 망치를 닮아놓은 듯 한 모양의 LED 등이 인상적이다. 대부분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적용해 단조로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세련된 감성이 투톤 알로이 휠을 더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아함과 다이나믹함을 각각 대변하는 XC90과 XC60과는 달리 XC40의 전면부 인상은 강렬한 인상을 뽐내는데 특징이다. 헤드램프 눈매를 보다 가까운 각도로 만들고, 토르의 망치 헤드 부분의 풀-LED램프를 'Y'자에 가깝게 디자인해 보다 날렵한 인상으로 완성했다.

◆실내공간 활용 극대화

운전석에 앉으면 곳곳에 다양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석 밑 수납공간, 오른쪽 무릎이 닿는 곳엔 선글라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등이 있다.

특히 도어 트림 수납공간은 매우 넓다. 한쪽 도어 트림에 노트북과 물통을 넣어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공간이 넓어진 건 저음역 스피커인 우퍼의 위치를 도어에서 대시보드 안쪽으로 옮긴 덕분이다. 기어 노브 앞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스마트키를 둘만 한 수납공간이 있다. 뒷좌석은 따로 없다. 그 뒤로 8단 자동변속기 전자식 기어 노브와 컵홀더가 나란히 있다.

콘솔박스는 뚜껑이 달린 휴지통과 깊은 수납함으로 나뉘어 있다. 여성 운전자를 위한 배려도 돋보인다. 조수석 클러치 박스 덮개에는 핸드백 걸이가 있다. 적재 공간도 460l에서 1336l까지 넓힐 수 있다.

◆기본에 충실한 주행성능

최고출력 190마력과 최대 토크 30.6

kg·m을 갖춘 2.0L T4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여기에 8단 기어트론닉 변속기를 조합해 AWD 시스템을 거쳐 노면으로 출력을 전한다.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 8.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공인 연비는 10.3km/L를 달성했다. (도심 9.2km/L 고속 12.2km/L).

고속도로에서 가속페달에 힘을주자 가볍게 톱 치고 나갔다. 특히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초반 급가속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가속력을 고속 주행에서 보다 완벽하게 느껴졌다.

또 다양한 안정장치도 탑재했다. 볼보의 지능형 안전 시스템인 인텔리세이프를 기본 탑재한 게 대표적이다. 인텔리세이프는 충돌 회피 지원, 긴급 제동 시스템(시티세이프티), 도로 이탈 보호 시스템, 파일럿 어시스트II(반자율주행)로 구성됐다. '웰빙'에도 신경 썼다. 차량 내부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유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실내공기 청정 시스템도 채택했다.

국내 판매 모델은 2.0L T4 가솔린 엔진, 8단 자동 기어트론닉, 사륜구동을 채택했다. 최고출력은 190마력, 최대토크 30.6kg·m이다.

더 뉴 XC40은 과장이나 화려함 같은 군더더기는 없애고 '안전·편의·실용'처럼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기능에 주력한 미니멀라이프 SUV다. 가격은 4620만~508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신기술 스타트업 키운다

'드림플레이 데모데이' 개최

LG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분야의 독창적인 기술과 창의력을 겸비한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LG디스플레이는 첨단기술 창업지원 전문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함께 추진한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드림플레이'의 성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드림플레이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드림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지난 3월부터 디스플레이 기술지원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기술 창업 지원을 바탕으로 미래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혁신을 이끌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창업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을 비롯해 LG전자·LG화학·LG이노텍·LG생활건강·LG하우시스·LG상사 등 계열사 스타트업 관련 임직원과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관계자, 스타트업 중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됐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직접 기술 분야 스타트업 5개팀과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응용 기술 분야 스타트업 4개팀이 기술 발표를 진행했다.



한 스타트업이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위한 직접·응용기술 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최우수상은 서라운드 오디오시스템 빌트인 CSO(크리스탈 사운드 올라드)를 발표한 '에스큐그리고'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한 팀들에게는 LG디스플레이가 제공하는 상금과 향후 Seed 투자 및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과 기술협력, 초기 투자 비용 지원의 기회 등을 얻게 된다.

LG디스플레이 CTO(최고기술책임자) 강인병 부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드림플레이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LG디스플레이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상생'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포스코ICT 中 제철소에 무인크레인시스템 수출

포스코ICT가 중국 철강기업에 스마트팩토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무인 크레인 시스템을 수출한다.

8일 포스코ICT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에 위치한 철강기업 서우강징탕강철이 신규 건설하는 제철소의 연주, 열연공장에 무인크레인인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번 사업에는 독일의 슈나이더와 이탈리아의 다니엘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포스코ICT가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종 수주한 것이다.

이번 사업으로 서우강징탕강철은 물류시스템의 자동화, 무인화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생산,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팩토리로 진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우강징탕강철은 서우강징철이 허베이성 탕산에 새롭게 신설한 철강기업으로 2009년부터 연간 970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파이프강, 표면처리 강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이 연변 등 길림성 돌아본 까닭은

만주에서 찾는 미래먹거리... 北 접경지 금융 선점효과도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새로운 미래'

길림성·홍콩·마카오 교류회 초청받아
베트남·싱가포르·홍콩 등 방문 꾸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불망위(安不忘危)'의 각오를 되새기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만리장성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편안한 가운데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는다'는 각오를 밝힌 그는 순이익 2조원에 달하는 하나금융그룹 현재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조용한 2인자'에서 하나금융그룹의 '백년 대계'를 설계하는 김 회장. 그에게 해외 시장은 두려움이자 설렘이다. 3연임에 성공하면서 덩치 큰 글로벌금융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하나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8일 하나금융그룹은 중국 길림성 정부와 전면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신남방정책과 함께 글로벌 성장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에 부응하고, 북한의 정세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길림성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6일 길림성 정부가 주최하는 '제1회 길림성·홍콩·마카오 및 국제 금융협약 교류회'에 초청받아 참석해 밀접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길림은행 정보상(장바오상) 동사장(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길림성 오정평(우정평) 상무부성장,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길림성 경준해(정준하이) 성장, 길림은행 윤규섭 부행장, 길림성 풍희량(풍시리양) 비서장, 길림성 창지투 반공실 최군(추이첸) 주임, 하나(중국)유한공사 임영호 법인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교류회 참석에 앞서 중국의 훈춘시, 연변자치주, 장춘시 그리고 러시아 자투비노 항구 방문을 통해 '창지투 개발·개방 선지구' 일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길림성과의 협력확대 방안을 구상했다.

특히, 이 날 파음조로(바인차우루) 길림성 서기 및 경준해(정준하이) 성장, 강치영(지양쯔잉) 연변주서기 등 고위급인사와의 회견을 통해 상호발전방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폭넓은 상호이해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KEB하나은행을 통해 길림성 정부와 '상호협력 및 발전, 공동번영'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KEB하나

은행과 길림성 간 ▲동북아지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추진에 대한 금융협력 ▲한중 국제협약 시범구'의 발전 및 성공을 위한 지원 ▲창지투 지역인 장춘(창춘), 길림(지린), 두만강(두먼) 개발과 관련된 금융업무상의 협력추진 및 ▲두만강 지역 개발 관련 국제금융포럼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길림성과의 전면적 업무협력 추진을 통해,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모드가 조성되고 향후 북한 개방이 본격화되면 북한과 중국 내 북한 접경지역에서 금융 관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중국법인인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의 임영호 법인장은 "이번 길림성과의 MOU를 통해 길림성의 창

지투 지역 개발에서 금융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길림성은 중국국가발전 전략 중 하나인 '신동북 진흥계획'과 '일대일로' 전략, 러시아의 '신동방 개발계획' '그리고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교차되는 전략적 요충지다"면서 "향후 한국의 부산을 거쳐 북한의 나선, 중국 길림성의 창지투 개발개방 선지구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회랑 건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해외에 하나금융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까지 그룹 내 글로벌 부문 이익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은 전 세계 24개국에 총 174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규모가 큰 하나은행(중국)유한공사는 지속적 현지화추진을 통해 급변 상반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100%이상 성장한 400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해외 행보도 바

빠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중국과 베트남·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을 쉬지 않고 다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인도·베트남·필리핀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키워 아시아 벨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외 M&A에도 직접 발품을 팔았다. 베트남 4대 국영상업은행인 베트남산업은행(BIDV)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김 회장은 올해 초 비공식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했고 베트남 경제부총리까지 만나는 등 공을 들였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체크카드 빌려주기, ‘불법’입니다”

금감원 Q&A

Q 요새 저는 모르는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겨우 3일만 빌려줘도 4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도 하고, 마침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긴하지만 한번쯤 빌려주면 어떻게 자꾸 고민이 됩니다.

A 최근 교묘한 수법으로 대표통장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 불법업자들이 통장을 언급하지 않고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광고하고 사례가 눈에 띕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은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있지만,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에 포함된다는 인식

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사고파는 것도 불법이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다른 사례로는 대표적인 유형이 불법업자들이 유통회사,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사칭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주로 영업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감면받거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사용하겠다고 카드 등을 빌려줄 것을 광고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거나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며 대여자를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수량 한정”, “조기마감”, “투잡”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기도 합니다.

/유재희 기자

KB국민은행 국내 최초 'KB 글로벌 구매론' 출시

KB국민은행은 8일 기존 송금방식(T/T) 무역대금 결제 방식에 신용장 방식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KB 글로벌 구매론'을 국내 은행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송금방식 무역대금 결제 방법은 결제 절차가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출업체가 만기 전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KB글로벌 구매론은 국내 수입기업이 해외 수출기업에게 물품을 받는 즉시 은행이 해외 수출업체에게 수입대금을 선



지급해 해외 수출기업이 결제일 이전에 자금 활용이 가능해졌다.

/안상미 기자

IC단말기 미전환가맹점 카드거래 못한다

MS방식 단말기 보안상 문제 많아
20일까지 교체 신청만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21일부터 IC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전면 차단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단말기 전환을 완료했고,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영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 MS방식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가맹점으로 인한 신용카드 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하고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뒤 가맹점에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권고해 왔다.

현재 IC 단말기 전환율은 95.1%로,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단말기를 전환한 상태다. 당국은 오는 20일 기준 전체 가맹점 97

~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당국은 21일부터 카드거래 차단된 미전환 가맹점이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영업상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 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도 교체시점까지는 기존 단말기 이용 가능케 한다. 하지만 현장 방문시 가맹점이 단말기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하면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NH농협은행 “팔로어와 떠나는 농촌체험여행”

NH농협은행은 지난 7일 강원도 춘천 원평팜스테이마을에서 SNS팔로어 80명과 함께하는 농촌체험여행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현재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매달 2회씩 농촌체험여행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농업·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

농촌체험여행 이벤트는 농협은행이 펼

치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원 국민공감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됐고, 매회 약 30~8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강릉, 정선, 서천 등의 지역별 테마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최창수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SNS 운영진이 함께 참여해 맨손송어잡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의 체험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카드 ‘신한FAN’ 가입고객 1000만 돌파

신한카드의 디지털 플랫폼 신한FAN이 금융사 최초로 가입고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3년 4월에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앱카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뒤 다양한 서비스를 탑재해 신한FAN으로 개편했다. 5년 만에 총회원이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결제 이용금액도 2013년 3000억 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 원으로 20배 넘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4조1000억 원을 포함한 누적 이용금액은 23조 원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회원 10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여러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FAN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하이닉스 안에서
세상 밖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숲세권+역세권... 내집마련 꿈 찾아 '꿈의 숲'에 복적

Q 르포 |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 가보니

교통 호재 있어 집값 상승 전망
당첨된다면 시세차익 최소 1억

“강남 집값은 오늘 만큼 올랐고, 강북이 이제 시작이죠.”

지난 6일 서울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한 방문자가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강남 집값이 주춤하는 반면, 강북은 활기를 찾고 있기 때문. 특히 숲세권(자연친화적 아파트)·역세권 입지를 갖춘 알짜배기 새 아파트의 경우, 향후 시세차익이 기대돼 '준(準)로또 아파트'로 이름이 쏠리고 있다.

◆숲세권에 '자녀 양육' 관심 ↑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에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최고 기온 28도에 달하는 날씨에도 방문자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 채인병 태원피앤에이 분양소장은 “견본주택 오픈 공지 후 하루에 600~700통씩 문의 전화가 왔다”라며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선 보기 드문 3·4Bay(베이) 설계에 자연환경이 좋고 교통 호재가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는 지하 2층~

지상 29층, 19개 동, 총 171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59㎡A 156가구 ▲59㎡B 68가구 ▲76㎡ 42가구 ▲84㎡A 332가구 ▲84㎡B 231가구 ▲111㎡ 15가구 등 총 84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날 견본주택엔 59㎡A(판상형·3bay), 84㎡A(판상형·4bay), 84㎡B(타워형·3bay) 등 세 가지 타입이 전시됐다. 가구마다 천장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 센서(무선 AP 일체형)'가 눈길을 끌었다. 집 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IoT(사물인터넷)가 연동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작동하게 하는 장치다. 아울러 '네트워크월패드'를 통해 인터폰을 받을 때 아이, 여성, 노약자의 목소리를 성인 남자의 목소리로 바꿀 수 있다. 5~20층까지 흡수 세대엔 오픈형 발코니도 있다.

특히 단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발길이 이어졌다. 단지의 직선거리 250m에 북서쪽 꿈의숲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인접해 있다. 장위뉴타운 분양 단지 중 유일하게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도 조성된다.

박선동 씨(가명·36)는 “자녀가 4살, 2살이라 자연환경이 쾌적하면서도 초등학교 가기 전 7살에 입주할 수 있는 단지를 찾



지난 6일 오전 10시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서 문을 연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 앞에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위). '꿈의숲 아이파크'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았다”라며 “근처에 장곡초, 청문여중이 있어서 학군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시세차익 적어도 1억원”

‘로또 청약’ 기대감도 높았다. 강남이나 강동만큼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규제 분위기나 개발 호재 등을 고려하

면 ‘준(準)로또’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꿈의숲 아이파크 3.3㎡당 평균 분양가는 1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별로 보면 ▲59㎡ 4억7500만~4억9800만원 ▲76㎡ 4억9500만~5억1200만원 ▲84㎡ 5억8400만~6억2200만원 ▲111㎡ 6억

4700만~6억7700만원이다.

채 분양소장은 “꿈의숲 아이파크 84타입 최고층 분양가가 6억2200만원인데, 인근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6억8000만원)에 비하면 세금,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빼도 5000만원 가량 저렴하다”라며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 호재 등 생각하면 입주할 때 1억원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했다.

특히 교통 호재가 집값을 끌어올릴 전망이다. 현재 장위뉴타운은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깝고 1호선 광운대역, 4호선 미아사거리역, 1·6호선 석계역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내년엔 동북선 경전철이 착공, 2024년에 개통되면 북서쪽 꿈의숲 동문삼거리역(가칭)을 이용해 왕십리역까지 1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광운대역으로는 경기도 양주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C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강동 등에서 발길을 돌린 이들도 있었다. 김세희 씨(가명·31)는 “최근 고덕 자이 청약에서 떨어지고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를 찾아보다가 강북 쪽으로 오게 됐다”라며 “장위동에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최근 집값 오르는 걸 보면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청약은 오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입주는 2020년 12월이다.

글·사진=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coul.co.kr

주간펀드 동향

美·中 무역전쟁 불안감 국내외펀드 자금 순유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외 증시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에 펀드에서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

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6월29일~7월5일)간 미국의 중국수입품 관세부과 발효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확대되며 건설, 철강, 기계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난 결과 전주 대비 2.45% 하락한 2257.55에 장을 마감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0.80% 상승한 2096.19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EM 지수는 전주 대비 0.73% 상승한 1054.35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국내주식형펀드는 2.30%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이에 순자산은 9500억원 감소했다.

해외주식형펀드 역시 1.26% 하락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베트남(-6.81%), 일본(-3.57%), 아시아퍼시픽(-2.04%) 펀드 등 아시아 및 신흥아시아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브라질(3.68%), 중남미(2.24%), 중동아프리카(1.89%) 펀드 등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신흥아시아주식 유형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면서 순자산은 3200억원 줄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주식형 펀드는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인 '하나UBS코스닥벤처기업&공모주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과생형)ClassA-E'(0.06%)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글로벌벡터 유형으로 분류되는 '블랙록월드에너지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A)'(3.03%)이 수위를 차지했다. /손영지 기자

추가 하락 대비... 저점 확인 후 집중 투자해야

株라쿨라의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 보수적 시각 권고
남북경협주 긍정적 투자전략 제시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8일 '상반기 성과평가 및 하반기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앞서 제시한 전략들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제시한 인사이트는 타월했다”고 자평하면서도 “다만 매도 타이밍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리서치알음은 '제약·바이오, 2차 상승이나? 추가 하락이나?'(2018년 2월 19일)'는 보고서를 통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권고했다.

해당 보고서의 우려대로 이후 회계리스크가 부각되며 관련주들은 급락했

〈남북경협주 수익률〉

수익률(상반기)	대아티아이	동양철관	제용전기	아난티	선도전기	다스코	도화엔지니어링	비츠로시스	희림	비에이치아이	평균
증가 기준	296.3%	117.5%	69.8%	54.6%	47.6%	38.3%	28.3%	15.5%	11.0%	6.2%	68.5%
고점 기준	579.0%	282.9%	273.1%	137.4%	192.9%	127.1%	105.0%	149.8%	66.2%	96.8%	201.0%

다. 최근에는 '네이처셀'의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슈까지 불거지며 추가 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리서치알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관계 회복의 대전환점이 될 전망(2017년 11월 6일)' 보고서 이후 지속적인 관련 보고서 발간을 통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시장 전망 속에 관련주들의 조정이 이어졌지만, 관련주들의 평균 수익률은 6월말 기준 68%, 고점 기준 평균 수익률은 201%에 달했다.

지난주 '미·중간 무역분쟁에도 수혜 받는 기업이 있다(2018년 7월 2일)'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조해표는 발간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한 주동안 80% 가까이 급등하며 관련 식품업계 전반의 상승을 이끌었다.

최 연구원은 “하반기 증시 역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며 “저점을 확인한 후 집중투자할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중간의 '무역 전쟁'은 미국, 중국과의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지난 6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간 금리가 역전됐고, 여기에도 원

달러 환율까지 상승하며 외국계 자금 이탈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9조원 가량 순매수하며 증시를 주도했지만, 휴가철과 추석 명절 기간 자금 수요가 크고 연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로 자금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그동안 주식시장의 매수 주체였던 개인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와야 바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내 증시가 다음달까지 저점을 형성한 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여름 비수기는 잊어라... 분양열기 '활활'

분양캘린더

7월 둘째 주 분양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통상 여름은 무더운 날씨 탓에 홍보와 집객이 어려워 분양 비수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6·12 지방선거 이후 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쏟아지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6242가구가 분양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를 포함한 1만681가구, 지방에서는 대구 봉곡동 '앞산비스타동원' 등 5561가구가

각각 일반에 공급된다.

다음주 25곳이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9일엔 인천 경서동 오피스텔 '청라레이크뷰', 경남 거제시 문동동 '거제시문동동' (영구임대) 등 세 곳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10일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메트로하임센트리버' (도시형 생활주택) 등 세 곳이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11일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 경기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1' (공공임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7월 둘째 주 수도권 1순위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7/9(월)	접수	인천	서구	경서동	청라레이크뷰	
7/10(화)	접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메트로하임센트리버	
7/11(수)	접수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1순위(당해지역)	
			용인시	동백동	신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1순위	
7/12(목)	접수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S1(공공임대) 1순위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공릉(행복주택) (~7/18)
			고양시	행신동	고양행신2A4(행복주택) (~7/18)	
			군포시	도마교동	군포송정A1(행복주택) (~7/25)	
			남양주시	별내동	남양주별내A1-2(행복주택) (~7/25)	
			시흥시	능곡동	시흥장현A4(행복주택) (~7/18)	
			안양시	안양동	안양씨엘포레자이 1순위	
7/13(금)	접수	경기	평택시	평택시	화성봉담2A6(행복주택) (~7/20) 힐스테이트지제역 1순위	

12일엔 서울 노원구 공릉동 '서울공릉(행복주택)' 등이 각각 청약 접수에 들어간다. 13

일엔 경기 평택시 동삭동 '힐스테이트지제역' 등이 청약 접수를 접수한다. /채신화 기자

文 대통령 신남방정책 본격화

인도 삼성공장 방문, 기업과 '보폭 맞추기' 신호탄?

인도·싱가포르 5박6일 순방

박용만 회장 등 경제사절단 동행
오늘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新)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위해 8일 5박6일간의 여정길에 올랐다. 이날부터 11일까지는 인도, 11일부터 13일까지는 싱가포르를 각각 국빈방문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도와 싱가포르를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 국가로, 양국 순방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시에 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이루려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더 지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지동성 SK루브리컨츠 대표,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재혁 롯데그룹 식품BU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예정이어서 중국에 이은 '제2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될 인도에서 정부와



인도와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간 교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중에서도 9일 문 대통령이 방문하게 될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는 경제사절단과 별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만남도 성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삼성그룹의 국내외 사업장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중국 순방길에는 현대차 공장을, 국내에서는 LG그룹과 한화그룹

계열사 공장 등을 각각 방문했지만 유독 삼성과는 인연이 없었다.

일부에선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삼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과 '보폭 맞추기'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착일인 8일 오후부터 세계 최대 힌두교 사원인 악샤르담 사원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도 일정에 들어간다. 인도는 우리보다 3시간 30분 가량 늦다.

이튿날인 9일 수수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이날 삼성전자는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세계 2위 규모인 인도의 인구가 조만간 1위가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경제성장률도 7%대여서 새로운 터전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기업이 인도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이번 순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 경제계 대표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양국 정부 당국과 기관의 협력을 위한 MOU(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쌍용차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저녁에는 인도 국가원수인 나트 코빈드 대통령과 면담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1일 인도를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문 대통령은 12일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면

담하는 데 이어 리센룽 총리와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 정부 당국 및 기관 MOU(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등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부가 배양한 난초에 외국 정상의 이름을 붙이는 '난초 명명식'에도 참석한다. 한국대통령이 난초 명명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후에는 한-싱가포르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 한반도 및 아시아의 평화·번영에 대한 메시지에 집중한다. 싱가포르 지도층과 여론 주도층 인사들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 렉처'를 통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싱가포르 측의 요청에 따른 일정"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세안의 평화번영과 연결된다는 점,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연관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한 오찬간담회를 마지막 일정으로 소화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성장률 7%... 인도시장 공략 키워드 'I.N.D.I.A'

전경련, 인구 13억명... 세계 2위
정부 개발의지 강해 '인프라' 유망

- I mproving economic indicators 경제지표 개선
- N umerous people 풍부한 노동력
- D eregulation 규제완화
- I nfrastructure 유망한 인프라 시장
- A im long-term 장기적 관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과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주목 받고 있는 인도시장 공략을 위한 키워드로 'I.N.D.I.A'를 제시했다.

'I.N.D.I.A'는 경제지표 개선(Improving economic indicators), 풍부한 노동력(Numerous people), 규제완화(Deregulation), 유망한 인프라 시장(Infrastructure), 장기적 관점(Aim long-term)의 앞 글자를 따왔다.

인도는 7%대 경제성장률, 인구는 13억명으로 세계 2위다. 모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개발의지에 따라 인프라 시장이 유망하다. 다만 전경련은 인도의 복잡한 사회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8일 전경련에 따르면 첫째, 인도의 경제지표 개선(Improving economic indicators)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저성장세에도 인도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좋은 편이다. 2018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7.7%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향후 7%대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은 점차 안정되고 있고 재정적자는 축소되고 있다. 약 13년 만에 신용등급도 개선됐다. 작년 11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Baa3에서 Baa2로 상향조정했다. 노동력도 풍부하다.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IT 전문 인력이 많다.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에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IBM 등 유명 다국적기업의 리서치센터가 위치해 있다. 블룸버그는 2020년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가능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내수시장 역시 유망하다. HSBC은행에 의하면 2018년 인도 중산층은 약 3억 명이며 오는 2025년 5억500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도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진출에 앞서 소비자를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모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는 2017년 100위를 기록해 전년대비 30위 상승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는 2017년 시행한 세계개혁인 통합간접세 제도가 꼽

힌다. 개편을 통해 주별로 다르게 징수되던 상품과 서비스의 간접세 세율이 통일되고 각 주의 진입세와 통행세가 폐지됐다. 이로 인해 주 간 상품 이동이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물류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외국인 투자가 최대 49%로 제한되어 있던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지분투자제한이 철폐되고 별도 정부승인 없이 매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인도는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개발을 추진 중인 인프라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중앙정부의 2018-19년 예산안 중 인프라 투자 예산은 전체의 1/4(24.4%)인 6조 루피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알 수 있다. 인도 인프라 시장의 규모는 201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6% 성장해 오는 2025년에는 1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美 폼페이오-北 김영철 회담
청와대 "첫 술에 배 부르겠나
한반도 비핵화 첫걸음 땀"

청와대가 북미정상회담 이후 지난 6~7일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간 회담 결과에 대해 8일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며 "잘 해결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땀"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비핵화 협상과 이행 과정에 이르러서야 곡절이 있었지만 북미 두 당사자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인 만큼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 속담처럼 '시작'은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은 최대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놓고 협상에 나선 폼페이오 장관이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반면,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했다'고 비난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승호 기자

싱가포르 '스마트 국가' 건설시장 선점해야

韓-싱가포르 경제협력 확대방안

무협, 신경제성장 모델 구축 도모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순방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시장 선점, 교류 확대 등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확대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를 기반으로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경제성장 모델 구축과 아세안(ASEAN) 지역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국가(Smart Nation)' 건설을 위해 교통·홈&오피스·헬스케어·핀테크·공공서비스 등 전 분야의 스마트화를 주도하는 한편 해외 기술 및 혁신기업 유치,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외에도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4차 산업혁명 적응도가 가장 높고 홍콩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자유도를 지

〈한·싱가포르 경제협력 분야 내용〉

/자료=한국무역협회

'스마트국가' 프로젝트 분야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싱가포르의 스마트도시 구축 프로젝트 참여 지원
정책협력네트워크 강화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네트워크 또는 민간 컨소시엄 강화
스타트업 분야 교류협력 확대	싱가포르 현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적극활용 싱가포르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참여
제3국 진출 교두보로서의 활용 확대	싱가포르 주도 '스마트도시 네트워크(ASCN)' 구축 대비 ICT, 솔루션 관련 우리기업의 참여와 공동개발 가능영역 발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싱가포르, ASEAN과의 전자상거래 장벽해소와 시장 활성화 촉진 한-ASEAN FTA의 자유화율 제고 및 경험 심화를 위한 협정의 업그레이드 조속 추진

닌 국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싱가포르의 스마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 네트워크와 민간 컨소시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

일해서 세금내고 사회에 적응하면 한국의 자산

“복지 의존 않는 ‘자립형’ 난민은 수용해야”



인터뷰
이호택 '피난처' 대표

논란 많은 한국 사회가 '난민'을 말하고 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 549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충돌이 거듭된다. 난민 신청 허가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은 8일 현재 66만명을 넘어섰다. 국제난민지원기구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지난 5일 동작구 사무실에서 “미국처럼 난민을 ‘열심히 일 해서 세금 내는 자립형 구성원’으로 만들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이번 논란은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난민은 한국에 잘 보이려 해”

-한국은 북한과의 종전 문제가 화두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상처도 극복해왔는데, 지난달 블로그에 적은 호소문에 달린 댓글의 혐오 표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혐오 표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난민은 한 사람의 온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난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임에도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적이 없다. 물론 2011년 말 난민법이 통과되고 2013년 발효된 건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 뜻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은 여론 형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도 있다.”

-실제 범죄 사례가 없는 건 아니어서,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에 대한 두려움이 여론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난민 관련 급상승 검색어 5위가 ‘독일 난민 범죄’였다.

“외국인의 범죄율은 일반 국민보다 낮다. 법무부는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2016년보다 약 6.4% 늘었지만, 외국인 범죄는 약 17.6%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경 자료를 보면 2016년 외국인 범죄자는 전체의 2.2%였다. 더군다나 난민 신청자는 한국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인터뷰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보호해 달라 말할 수 없다. 난민은 잘 관리되는 대표적인 외국인이다.”

“난민법보다는 ‘무슬림’ 사회통합 문제 생존·가족 부양 위해서 취업 필수적 남용적 난민 신청은 확실히 차단해야

유럽에서 일어나는 난민 법보다는 무슬림 난민의 사회 통합 문제다. 단순히 난민이어서가 아니다.”

-1994년~2017년 전체 난민 신청자 중에서 남성이 82%로 압도적이다. 난민의 이주 과정은 힘겨워서, 일단 먼저 정착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데 예멘 난민 신청자 중 504명이 남성인 점을 들어 취업 목적 가짜난민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4년째 활동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신의 생존과 가족 부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해야 한다. 박해와 전쟁을 피해 온 난민에게 취업은 기본적인 문제다.”

-직업을 구한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과거 일 하던 곳은 우리 사회와 똑같다. 변호사와 의사, 기술자, 기자, 회계사, 학생, 농민 등... 특히 기자가 많다. 그 사회에서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땅에서 난민이 되는 순간, 3D 업종에서 일 할 수밖에 없다. 어

차피 그런 곳만 일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과거 직업이 무엇이었던, 제주도에도 있는 난민 역시 한국인이 안 가는 업종에서 일한다. 어선원이 되거나 양식장에 간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한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50명 정도는 취업한 것으로 파악한다. 선원은 100여명, 양식장 150여명. 식당 같은 곳은 100명 정도.”

◆일해서 세금 내면 ‘한국의 자산’

-평소 ‘난민은 자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난민을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유럽과 달리, 비행기삿도 일 해서 갚으라는 미국식 자립형 모델을 염두해 둔 건가.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해 동안 전세계에서 비호 신청 하는 사람이 100만명이다. 재정착이 필요하거나, 부득이 터전을 급하게 옮겨야 하는 사람은 한 해 10만명이다. 이 중에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7~8만명을 받았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명령으로 4만명 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다.”

반면 유럽은 대부분 1000명 단위다. 독일은 100만명을 받아들였지만, 재정착 난민은 몇천명 단위다. 유럽은 복지 중심이어서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난민을 대한다. 그러나 난민 역시 그 사회의 온기를 못 느껴 반감을 가진다. 2011년 초개 영국과 독일, 프랑스 각국이 자신들의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

지 않았다. 그 무렵 테러도 있어 사회 통합에 골머리를 앓았다.

2014년~2016년 미국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 난민이 사회에 흡수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더라. 난민은 환영하되, 자립을 최우선에 둔다. 그래서 딱 3개월만 취업에 올인해 지원한다. 과거 당신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처음엔 설거지로 시작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만나고 이 사회에 걸맞는 성품도 기르라는 식이다.”

-한국은 어느 쪽인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처우가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은 유럽형을 생각한다. 반면 미국식 관점에서 보면 훌륭하다. 우리는 6개월 지나면 난민 신청자의 취업을 허가한다. 미국에서는 심사중인 난민의 취업 허가가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제도는 미국에 비해 훨씬 낫다.”

한국은 재정착 난민을 2015년~2017년 매해 30명씩 받았다. 이들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에서 6~9개월 동안 숙식과 사회 통합 교육을 제공받았다. 100% 취업으로 정착지에 나간 뒤에도 1년 간 정부가 보증금 빌려주고, 월세도 60~70만원 지원하는 식으로 돌봤다. 한국어 교육 지원과 멘토 연결도 한다.”

◆진짜 난민 적극 수용 절실

-지론은 ‘부드럽고 낮은 문턱, 하지만 악용되지 않는 제도’다. 법무부 산하 단체인데, 난민 제도 관련해선 건의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난민 인정률을 30%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난민 인정률은 평균 24.1%다. 보충적 인도적 보호율 12.3%를 합치면 36.4%다. 2016년 유럽연합은 60.8%. 난민 안 받는다 는 미국도 난민 인정률은 40%다.”

그에 비해 우리는 난민 인정률 4.1%에 인도적 체류가 7.6%로 총 11.7%다.

둘째는 낮은 문턱의 이점을 쉽게 이용 못하게 하는 ‘문지기’다. 난민 신청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황당한 이유를 가져와도 정부는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접수·심사 후 불인정, 행정소송으로 고법 가고 대법 간다. 심사를 빨리 하려 해도 통역 붙이고 면접 일정 잡으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화가 난다.

접수 당시 난민 신청자의 적격성을 따져야 한다. 캐나다가 대표적인 나라다. 뉴질랜드와 유럽, 일본도 적격성 심사가 있다. 무조건 다 받으면 안 된다.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너그럽게 수용하되, 남용적 난민 신청은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피난처는 몇 사람을 돕나.

“찾아오는 사람을 한 달에 100명. 신규 신청자와 기존 인원을 합친 숫자다. 하루에는 5명~10명이 찾아온다. 그나마 이 곳을 찾는 사람은 진짜 난민이다. 가짜 난민은 혼자 신청하고 브로커가 돕는다.” /글·사진 이범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한국이 현금지급기?

외국계 금융사, 매년 ‘1.2兆’ 본국 송금

최근 5년간 실제 총액 ‘7조’ 분석 SC제일은행, 8788억 가장 많아

〈2018년 1~3월 말 국내 외국계 은행 본점 이익금 송금 현황〉	
스테이트스트리트	129
HSBC	2,122
도이체은행	17
소시에테제네랄	176
크레디아그리콜	115
ING	162
인도네시아가라	6
파키스탄국립	5
씨티	939
한국스탠다드차타드	1,188
계	4,857

한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사들이 연 평균 1조2000여원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사들은 2013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총 6조7805억원을 본국에 송금했다.

집계 대상 외국계 금융사는 은행 40개, 증권사 11개, 보험사 28개, 자산운용사 23개 등 100개다. 다만 올해 1분기에 보험사 수치가 빠져 있어 최근 5년여간 실제 총액은 7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계 금융사의 본국 송금액은 2013년 1조257억원에서 2014년 8106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5년 1조5815억원, 2016년 1조3382억원, 2017년 1조3933억원을 기록했다. 연평균으로는 1조2299억원이다.

올해 들어선 1분기에만 631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금액의 절반 남짓에

달했다.

본사 송금액이 가장 많은 업권은 은행권이다. 외국계 은행의 5년여간 송금액은 3조4587억원으로 전체 송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SC제일은행이 본국에 송금한 돈이 87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HSBC가 8302억원, 한국씨티가 4713억원, JP모건이 1628억원 순이다.

2015년 6043억원, 2016년 6302억원이었던 외국계 은행의 본국 송금액이 올해 1분기에만 4857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H

SBC는 올해 1분 송금액이 2122억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송금액인 1101억원의 배에 육박한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5년여간 1조7358억원을 본사로 송금했다. 외국계 보험사의 최근 5년여간(2018년 1분기 미집계) 본사 송금액은 1조1945억원,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3915억원이다.

외국계 금융사의 본사 송금은 통상 이익금과 전산 이용료 등 위탁수수료, 광고비 등 본점 경비, 상표 이용료, 자문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명목으로 본국에 돈을 보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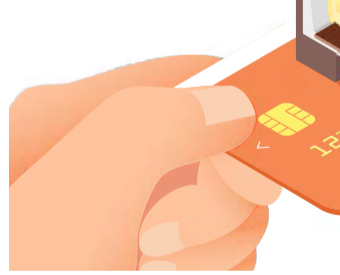
특히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을 막대한 현금을 반출하는 사업장으로 활용함에도 한국 사회에 기여는 크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수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전반에서 외국계 금융사의 약탈적 본사 송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재투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외식물가 ‘2.27%’ ↑ … 군것질 거리 ‘깡충’

물가상승률보다 1.3%p 높아 급식비 제외 가격 상승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갈비탕으로 5.9% 뛰었다. 이어 도시락(5.7%), 김밥(5.3%), 짬뽕(5.2%), 외식 생선회(4.7%), 짜장면(4.5%), 떡볶이(4.5%), 설렁탕(4.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체 39개 품목 중 21개 품목의 상승률이 전체 외식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외식 품목은 스테이크(1.2%), 막걸리(1.0%), 피자(0.8%), 커피(0.6%) 등 6개 품목뿐이었다. 치킨(1.4%)은 전체 물가 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올랐다.

생선회 가격은 인천(12.5%)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도 갈비탕(12.8%) 물가도 오름세가 컸다. 갈비탕은 대전(11.1%), 인천(10.4%)에서도 많이 올랐다. 이밖에 전남에서 김밥 가격(10.6%)이 상승률이 높았다.

전체 품목 중 유일하게 가격이 내린 학교급식비는 인천·전북(-66.3%), 강원(-66.0%), 광주(-41.6%), 전남(-36.6%) 등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충북(7.9%), 울산(7.8%), 서울(7.5%), 경북(5.8%) 등에서는 가격이 올라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올해 상반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식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가격에 적잖은 부담이 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식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이는 2011년 상반기(4.0%) 이후 가장 높았던 2016년 상반기와 같은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상반기 외식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로 바닥을 찍고 2015~2018년 2.1%→2.7%→2.3%→2.7%로 2%대를 4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올 상반기 전체 물가 상승률 1.4%보다 1.3%p나 더 높았다.

외식물가를 구성하는 39개 품목 중 학교급식비(-8.0%)를 제외하고는 38개 품목이 전년 상반기보다 가격이 올랐다.

alton
DO THE BEST, BE THE STYLE

www.altonsports.com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기자전거
Ealton



E-ALTON INNOZEN

자전거 전용 도로 진입 가능 (PAS 전용모델에 한함)

- 삼성 SDI 리튬 이온 배터리 3-4 시간 완충
- 완충 시 60km 주행 가능
- 전국 A/S망 구축





정용진 부회장

유통가 선도하는 신세계 남매의 '선의 경쟁'

베어로쇼핑 등 신사업 '장군' 인천공항 면세점 진출 '명군'



정유경 총괄사장

신세계그룹의 정용진·정유경 남매가 이마트와 백화점 부문에서 각각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고 있다.

이마트 부문을 맡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베어로쇼핑'을 오픈하는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며 백화점 부문을 책임진 여동생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8일 재계에 따르면 2015년 신세계그룹의 경영 체제가 '정용진-이마트-정유경-백화점'으로 나뉜 가운데 각자의 영역에서 사업 확장 행보가 더 빨라지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15년 말 인사에서 정유경 당시 부사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남매경영 체제가 됐으며, 이후 두 사람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용진, 베어로쇼핑·스타필드·온라인 정 부회장은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이며 유통 혁신을 가속하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는 '재밌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표방하는 만물잡화점 개념의 전문점 '베어로쇼핑'을 서울 코엑스에 선보였다.

신선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천냥 코너부터 명품 코너까지 4만여 가지 다양한 상품을 빈틈없이 진열해 판매하는 국내에 없는 새로운 컨셉트의 매장이었다.

신세계조선호텔의 첫 독자 브랜드 부티크 호텔인 '레스케이프'도 이달 서울 중



베어로쇼핑.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 모습.

/연합뉴스

각 영역서 공격 경영으로 시너지 ↑

정용진 온·오프 넘나들며 유통혁신

정유경 지난해 매출 1조 '흑자 전환'

구 퇴계로에 문을 연다. 19세기 파리 귀족 사회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인테리어를 가져와 일반 호텔과 다른 로맨틱한 분위기가 특징이라고 호텔 측은 소개했다.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대형마트 경영 환경이 악화하면서 정 부회장은 온라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월 외국계 투자운

용사2곳에서 온라인 사업에 1조원 이상을 투자받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로 나뉘어 있는 온라인 사업부를 통합하고, 이커머스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회사를 설립해 그룹 내 핵심 유통 채널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설법인인 2023년 연 매출 10조원을 달성해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자리에 오른다는 목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경기도 안성에 스타필드 안성을 착공해 2020년 스타필드 4호점으로 오픈하고 내년에는 각종 아시아 식품을 판매하는 이마트 PK마켓을 미국에 새로 문 열 계획이다.

◆정유경,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획득

백화점, 면세점과 패션, 화장품 사업을 책임진 정유경 총괄사장은 지난달 롯데가 반납한 인천공항 제1 터미널의 화장품·패션 2개 면세구역 사업권을 모두 따내는 성과를 거뒀다.

2012년 부산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면세사업을 시작한 신세계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등 경쟁한 경쟁사를 모두 제치고 사업권을 싸늘이하면서 사업 진출 6년 만에 면세 3강 구도를 구축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정 사장이 인천공항 사업권 획득을 위해 높은 입찰액을 적어내는 등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인천공항 제1 터미널 화장품·패션 면세장과 강남 센트럴

시티에 면세점 강남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흑자 전환한 데 이어 올해는 매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백화점이 만든 첫 뷰티 편집숍 '시코르'도 신성장 날개로 자리매김했다.

2016년 12월 대구신세계에 시코르 1호점을 낸 지 1년여 만에 지난달 용산 아이파크몰에 13호점이 문을 열었다.

신세계는 올해 시코르 20호점까지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세계 센트럴시티도 8개월간의 개보수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JW 메리어트 서울로 리뉴얼 오픈한다. 이 호텔 리노베이션에는 올슨 쿨닉, 카사포 등 세계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거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신세계가 6302억원을 들여 건립하는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지난 5월 착공해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이다. 백화점과 호텔, 전망대뿐 아니라 과학, 문화 체험시설 등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도 스타필드 고양에 '이마트 콘텐츠'와 시코르 등 '백화점 콘텐츠'를 한데 모아 시너지를 내는 등 주요 사업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영민 "5G, '세계 최초'에 의미뒤야"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사간 5G 과열경쟁 경계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의 의미가 희석되면 안 된다"면서 5G 상용화에 대한 국내 이동통신업체 사이의 과열 경쟁 가능성을 경계했다.

유 장관은 취임 1주년인 11일을 앞두고 지난 5일 과천과학관에서 "혁신성장의 중심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들어 있지만, 이 부분을 주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두잉(Doing), 실행력에 방점을 두고 조직의 변화 등을 더 힘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어려운 도전이 규제 개혁이지만 정부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규제 개혁을) 잘하겠다"면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7월 중순에 발표하고 하반기에 연구 현장에 접목되도록 유망 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하는 일을 국민이 알기 쉬운 말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간부들이 스피치 교육을 받기로 했으며, 전국을 다니며 명가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밝혔다.

유 장관은 국내 이통사가 5G 상용화를 위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에는 "중국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답변을 자제했다. 다만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다는 결국 서비스이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말기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통신 장비에 접속된다"며 "단말기가 우리 산업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고 나가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희석된다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통3사 중 누가 먼저 세계 최초인지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1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가고 관련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내 이통사의 특정 장비 선택을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이통사간 과열 경쟁으로 내년 3월 5G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영민 장관은 "정부는 예측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하고 법규, 규제 등 할 일을 해주면 된다"고 정부 역할을 규정했다. 서로 침예하게 싸우지 않고 준비하도록 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법은 법대로 가고 그것이 자극돼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퇴직연금 94% 단일금융사 전담... 경영체제 필요"

보험연구원 서비스 질 저하 우려

국내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 대다수가 단일 금융회사에게 퇴직연금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간 서비스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피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보험연구소 '해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서비스별 전문화 사례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도입기업의 94%가량이 단일 금융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단일 금융회사가 기업규모의 구분 없이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를 일괄 담당하

고 있는 구조인 것. 금융회사간 경쟁 부재로 동일한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질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해외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연금 규제 완화로 가입자의 니즈가 변화했다"며 "단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에서 전문화된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개별서비스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상서비스나 콘텐츠를 제공해 가입자의 충성심을 높이는 반면 위탁전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수익경쟁력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서비스 전문화에 주력하고 있는 영역은 연금 제도설계 영역, 운용상품 제공 영역, 투자상담 및 자문 영역, 가입자교육 영역이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맞춤형 운용상품을 개발해 특화된 투자상담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예컨대 '제도 설계 및 재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기업의 비용부담 능력이나 근로자 속성을 고려해 DB형 퇴직연금을 설계해 주고,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정평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은 "EU 재정동맹, 시장불안 요인 가능성"

해외경제 포커스

유로지역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재정동맹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동맹의 편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 이후 긴축재정 등으로 경제상황 개선이 지체되는 데다 유로지역 내 중심국과 취약국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유럽통합의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8일 한국은행은 '해외 경제 포커스' 보

고서를 통해 유로지역 내 유럽통합을 둘러싼 회의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국을 중심으로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반EU정서를 반영한 분리주의 정당이 부상하는 등 정치세력화가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유로지역은 경제통합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경제적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심국과 취약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축소해 안정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유럽통합을 완결하는 재정동맹(Fiscal union)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유로지역이 통화통합의 한계 노정,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 제약, 금융의 경기조절기능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 흡수 및 경제안정화 능력 등에서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재정동맹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제 재정 여건 동질화와 금융 재정 연계를 통한 재정리스크 방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재정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자원의 통합과 중앙기구에 의한 단일 재정정책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大-中企 임금격차 해소위해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보단 '성과공유제'

청년고용 문제 과제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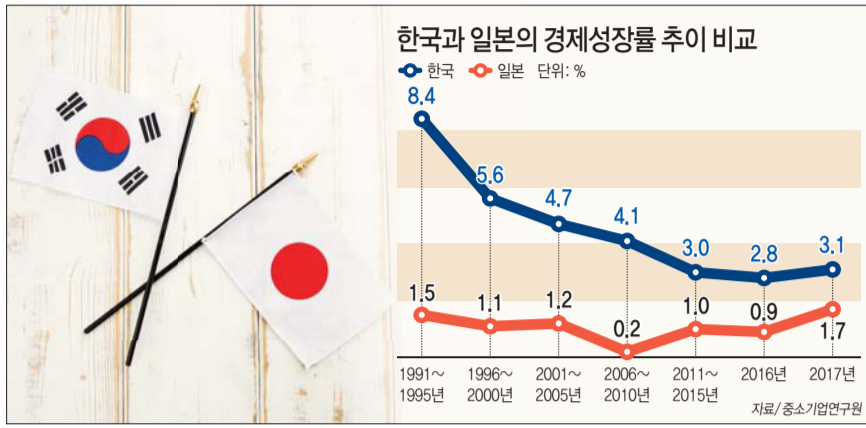
내일채움공제 등 효과 의문
생애보상제도 도입 '효과적'
고학력자들 일자리 확보돼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신규고용창출효과가 의문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채용보조금을 주기보다는 기업들이 성과공유제 등 생애보상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무원 시험 등 취업준비 기대수익률보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하는 기대수익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보상시스템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이전 취업 빙하기를 경험한 이 나라 일본보다 현재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뒤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한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고용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



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백 연구위원은 한국의 청년고용 관련 각종 지표가 일본보다 부진한 것은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 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 연구위원은 "청년 인구가 줄어도

고학력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자영업자나 유휴인력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어 인력부족 현상은 당분간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선 취업시장과 고용시장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과공유제도, 우리사주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 중소기업 경력자 창업지원 등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선

선취업·후진학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에코붐 청년세대는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다는 인력으로 기업가정신을 접목하면 우수한 창업자원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정책의 주도세력이 될 수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창업훈련을 대폭 강화해 실패확률을 줄이고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자가 아닌 투자형태의 창업지원, 창업실패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공공부문 채용자의 상당비율을 창업경험자에 할당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말했다.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려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잡으려는 경직된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을 기업에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더 실효성 있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농식품부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점검

정부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남은음식물 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3주 동안 돼지농가에 급여하는 남은음식물의 사료제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사료제조를 위한 남은음식물의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선박·항공기의 남은음식물에 대한 적정관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해외로부터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환경부, 지자체와 20개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남은음식물 사료제조업체(45개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192개소),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개소) 등을 점검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해양환경공단

과견직 30명 정규직 전환

해양환경공단이 과견용역 노동자 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단 과견용역 노동자 3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등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공공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고령자 친화 직종에 해당하는 시설물청소 및 경비 노동자들의 경우 정년을 만65세로 상향해 고령층의 일자리 기회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했다.

박승기 이사장은 "새롭게 공단의 구성원이 된 직원분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 및 안정된 고용환경에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인천항서도 '여왕 붉은불개미' 발견... 방역 총력전

농식품부, 발견지점 주변 소독 추가 정밀조사·역학조사 나서

최근 부산과 평택항에서 발견됐던 붉은불개미가 인천항에서도 발견됐다. 특히 인천항에서는 처음으로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가 발견돼 검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여왕개미 한 마리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수백 마리가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환경부·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를 펼친 결과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 최초 발견지점에서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붉은불개미 유입 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 결과를 볼 때 올해 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체 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 단계의 군체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붉은불개미가 최근 잇따라 발견된 데 이어 자체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되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을 정밀히 조사하고, 주변에 예방 트랩을 11개에서 766개로 대폭 늘렸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붉은불개미가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오는 컨테이너를 들어오는 항만 12곳에 컨테이너 점검인력 122명을 투입해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며 "인천항에는 임시로 점검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견지점 주변 200m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 전 철저히 소독하고, 야적장에 대해서 추가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입 원인, 시기, 발견지점 사이의 연계성 등을 밝혀내고자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도 한다.

이번 붉은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이래

여섯 번째이며,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나온 사례로는 네 번째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붉은불개미의 독에는 알칼로이드인 '솔레놉신'과 벌이 가진 펩타이드 독성분인 '포스포리파제'나 '하이알루로니다제' 등이 포함돼 있다. 쏘이면 통증에 이어 가려움증이 나타나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오려려 인체보다는 가축과 농작물 피해 때문에 미국 등 각국의 당국이 신속한 검역과 방제에 나서는 실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다만 독성 과민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美·中 무역전쟁 우려에 국제 곡물가격 하락세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76.1p보다 2.4포인트 하락한 173.7p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식량 가격지수는 올해 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락했다"며 "국제 무역관계 긴장으로 대부분 시장이 최근 약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곡물은 전월보다 3.7% 떨어진 166.2p를 기록했다. 쌀은 가격이 올랐고, 옥수수과 밀은 급격하게 가격이 내려갔다. 반면, 공급량 부족으로 자포니카 쌀과 향미 가격은 올라가 국제 쌀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최신용 기자

'금산 전통인삼농업' 세계중요 농업유산에 오르다

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이 인삼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산 전통인삼농업'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과학자문그룹(SAG) 최종심의회에서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밭아시간 단축을 위한 전통적 개갑(開甲)처리 등 전통인삼농업기술의 문화·사회적 가치 등이 인정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FAO는 2002년부터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다양성과 전통 농



우리나라 전통인삼농업인 금산 인삼농법으로 파종을 하고 있는 모습. /농식품부

업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GIAHS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 20개국의 50여개 지역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제1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제주 발달농업(제2호 국가중요농업유산)', 2017년에 '하동 전통 차농업(제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광주 軍공항 이전 급물살 타나 민간공항 무안이전 양측 '한뜻'

광주시-전남도 합의 급물살
이전 예정지 주민 설득이 '관건'

민선 7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취임 하면서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다.

특히 이용섭 광주시장이 '조건 없는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발표하자 전남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는 등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전향적 의지를 갖고 있어 더욱 긍정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 회를 통해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발표했다.

이에 전남도 민선 7기 취임준비기획단은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조건없는 이전을 발표한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대화를 위한 주춧돌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전남도가 먼저 요구하기 힘든 민간공항 이전 조건을 광주시가 제시하면서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문제를 외면할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취임 전부터 일단 대화 분위기가 형성된 셈이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 조직



광주 도심을 비행하는 전투기

/연합뉴스

개편안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규모의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에서 군공항 이전추진본부는 기존 군공항이전사업단의 3개 계에 인원 14명이던 규모를 2개 과 인원 35명 수준으로 대폭 늘렸다.

이 시장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절실했지만, 군 공항과 연계돼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영록 지사 취임 이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여차피 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선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무안공항이전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진 데다 김 지사가 군 공항 이전에도 전향적 생각을 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기존 생각의 틀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 후보 지역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 작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전 예정 후보지 주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군 공항 이전에 합의하더라도 이전 후보지 주민의 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국방부와 함께 이전 후보지 주민을 설득할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오는 8월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참여하는 민선 7기 첫 번째 광주·전남 상생협의회가 주목된다.

/광주·전남 무안=김남중·봉태영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52시간 유연근무제 도입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89%' 시행

대기업·중소기업 도입률 '21.9%'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모두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12개 기관(비공시 대상 3개 기관 제외)이 모두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그 부속기관 361곳 중 88.9%인 321곳이 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탄력근무제를 시행(2017년 기준)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한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21.9%(기업은행 IBK경제연구소 2016년 기준)에 그쳤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시차출퇴근제·선택 근무제·재택 근무제·원격근무제 등이 해당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대부분은 탄

력근무제도 종류인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선택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관리업무가 집중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일하게 한국농어촌공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원격근무제인 '스마트워크근무형'을 선택한 직원이 190여명으로 탄력근무제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정부 예산집행 업무가 많아 국회 등 수도권 지역 출장이 잦은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제외하고는 '집약 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을 활용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

빛가람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몇 해 전부터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해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다"며 "다만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선택하는 직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함평군 재배기술 등 여름철 영농교육 성황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9개 읍·면 90개소에서 농업인 1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8일 밝혔다.

마을단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제(PLS),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작물재해보험 등 주요 시책을 작목별 전문지도사 26명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대추연구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1시간 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대추의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대추의 여름철 관리요령,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의 교육도 진행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했다.

교육에 이어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불편사항을 일문일답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함평군

형식으로 주고받으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향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토양경정, 농산물안전성 분석, 유용미생물공급, 농기계임대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이용해 농업 기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 함평=양수근 기자 ysn6313@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를 홍보해주세요"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실시
수영장 방문·대회현장 체험 등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대회 붐업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년 기념행사일에 맞춰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전국의 유명 파워블로거와 뉴미디어 기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팸투어단은 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을 방문해 대회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제는 광주'라는 주제로 열린 D-1년 기념행사에 참석 내년에 열리는 세계수영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느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1년을 앞두고 대회 붐업과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뉴스IS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양림동근대역사문화마을, 환벽당, 소쇄원 등을 둘러보고 맛집 탐방을 통해 개최도시 광주의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조직위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적극 홍보할 목적으로 이번 팸투어를 기획했다.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세계수영대회준비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행사에 참가한 파워블로거 한 분 한 분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5호점 선정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5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지역에 위치한 한 가정을 대상으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5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45호

점에는 학습 환경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선정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습 공간이 여의치 않았던 삼형제를 위해 새 책상과 의자, 학습용 컴퓨터를 준비하여 공부방을 꾸며주었다.

/광주=봉태영 기자



집중호우 침수피해 개선사업비 34억 확보

광주시,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선정

광주광역시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비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분량지구가 배수개선사업 2018년도 신규지구로 선정돼 국비 34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에 대해 배수로정비 및 배수장 등을 설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송산지구(242ha, 2010년 준공), 양산지구(102ha, 2016년 준공), 화장지구(345ha, 2017년 준공)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19년까지 와산지구(51ha, 2018년 준공 예정), 오산지구(53ha, 2019년 준공 예정)를 추가로 완료할 계획이다.

분량지구는 신규지구 지정과 함께 교부된 국비 1억5000만원으로 올해 하반기

부터 내년 초까지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한다.

배수개선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지구 지정을 받기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심하다.

이에 광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올해 농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생산 조정제)에 주민이 참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신규지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에도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지구로 광산구 지정체가 확정돼 국비 76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분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일대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조건이 개선된다"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8-636호(2018.2.13)



- ☑ 암에 걸리면 **실직**할 수도 있잖아요?
- ☑ **치료비**가 훨씬 **비싼 암**도 있다던데?
- ☑ **60세** 넘어 **암** 걸리는 사람 참 많거든?

그래서, 저 박상원과 라이나생명이 튼튼한 암 보장을 선언합니다!

[라이나생명(무)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암, 치료법이 좋아지는 만큼
대비해야 할 비용도 늘었습니다.
비급여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도
생각한다면 든든한 보장의
라이나플러스암보험에 지금 전화주세요!



신약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박상원 / 생명보험판매자격보유

• 본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15세부터 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임 • 기존보험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24시간 상담 신청
지금 전화 주세요

080-763-7070

이화의료원, 감염교육·연구센터 개소

국제적 수준 감염제어 체계 구축

감염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관리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환자안전 최우선 문화’에 기여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과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전담할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ECT)’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4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의학관 1층 로비에서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 현판식을 진행하고 이어 감염교육·연구센터 개소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병인 이화의료원장,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을 비롯한 이화의료원 관계자들과 학교법인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수영 양천구청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화대의 미생물학과 서주영 교수를 센터장으로 한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는 감염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준의 감염관리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의 감염제어 능력을 갖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사진 왼쪽 가운데)과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감염 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염관리에 철저한 병원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감염 역학 연구 및 관련 중개 연구, 감염 제어 연구 및 감염 교육 개발 연구를 수행해 병원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 성과를 의료계와 공유해 ‘환자안전 최우선 의료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판식에 이어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임상 감염 제어 연구’와 ‘감염 제어 중개 연구’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행해 온 결과물을 공유하고 향후 감염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감염 연구의 수준을 한단계 격상해 병원내 감염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으며, 초청 연자들이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과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했으며 교육, 연구의 상호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센터 개소를 계기로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병원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병원 내 감염률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의료원은 감염 교육 및 연구를 주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이화 감염교육·연구센터 감염 교육 및 연구 활동 결과를 공개해 환자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이사 패키지’ 첫 홈쇼핑서 4300콜 신기록

한샘 ‘이사 프리미엄서비스’

한샘이 가구, 중문, 포장이사 등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한샘 이사 프리미엄 서비스’ 첫 방송에서 자사 역대 최고기록인 4300콜을 달성했다.

8일 한샘에 따르면 이달 1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가구, 중문, 포장이사, 입주청소 등 필수 상품을 패키지로 구매해 손쉽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획전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 한샘은 1시간 사이 총 4300콜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상담신청 후 직접 매장을 방문해 결제하는 모객 방송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제 방송 평균 콜 수보다 6배 가량 많은 숫자다. 한샘은 특히 새로 구입해야 할 것이 많은 이사가 고객 특성 상 실제 구매 전환율



한샘 이사 패키지 중 하나인 ‘라이너스 중문’.

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방송은 지난 4월 시작한 ‘한샘입주 온라인 박람회’의 서비스를 홈쇼핑에 적용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전국 100여개 아파트에 신규 입주하는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방송에서만 이사를 준비하는 모든 고객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에너지워너상 ‘대상·기술상’ 2관왕

나노직수 정수기·시루직수 정수기

코웨이는 자사의 나노직수 정수기와 시루직수 정수기가 ‘제 21회 에너지 워너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에너지 기술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하는 에너지 워너상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나노직수 정수기는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기존 컴프레서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냉각 효율을 약 34% 향상시켰다. 또 새로운 인버터 컴프레서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해 컴프레서 가동률을 최소화했다.



코웨이 나노직수 정수기(왼쪽)와 시루직수 정수기.

시루직수 정수기는 RO 멤브레인 필터를 적용한 제품이지만 수조가 없는 직수 방식을 구현한 국내 유일의 정수기다. 고효율 빙축 냉각 시스템과 나선 유로형 온수 시스템을 활용해 정수기 내부의 냉각 및 가열이 이뤄지는 접촉 면적을 넓혀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김승호 기자

장마철 제습기, 더 뽕송하게 사용하려면?

창문·문 닫아야 효율 높아
집안 전체보단 각 공간마다
돌아가며 가동해야 효과 ↑



(왼쪽부터)코웨이 인버터 제습기, 청호나이스 2 in 1 제습기. /각사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창문과 문을 닫아야...’

여름철 장마가 한창 오라가락하는 가운데 뽕뽕해진 집안을 관리하기 위해 제습기를 활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8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도움을 받아 제습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우선 제습기 사용시 가장 중요한 것은 창문이나 방문을 열어두면 제습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열려있는 문을 모두 닫고 밀폐된 상태에서 가동해야 한다.

보통 제습기를 켜 놓는 것과 함께 외부의 공기가 집안의 습기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바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외부의 습기까지 억지로 집안에 유입시켜 제거하기 때문에 제습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된다.

이에 따라 집안 전체를 한꺼번에 제습을 하기보다 방 1, 방 2, 방 3 등 일정 공간마다 밀폐를 시켜놓고 돌아가면서 제습을 해야 습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집에서 가장 습기가 많은 욕실도 문

을 닫고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빠르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장마가 길어질 경우 빨래를 말리는 데도 제습기가 유용하다. 이 때도 젖은 빨래를 거실 등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 놓고 제습기를 가동하는 것보다는 작은 방에서 가습기를 돌리는 것이 빨래를 더욱 빠르게 말릴 수 있다.

거실, 방 등 특정공간뿐만 아니라 여름철 습기가 많고 눅눅해진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관리하는데도 제습기가 좋다.

이불 등을 햇볕에 널어놓기 쉽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이불장이나 옷장 문을 열어놓고 제습기를 가동하면 더욱 뽕뽕송송하게 유지할 수 있다.

여름철엔 비 맞은 우산이나 젖은 신발로 인해 습기가 많은 신발장도 제습기를 이용하면 좋다. 다만 이 때는 신발장문을 열어놓고 제습기 바람방향을 신발장쪽으로 향하게 뒀다. 업계 관계자는 “제습기를 가동하고

물이 고이는 물통을 그대로 방치해놓기도 하는데 이는 위생에 좋지 않다”면서 “물통은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세척과 건조를 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융합형인 제습기청정기가 인기다. 하나의 제품으로 제습과 공기청정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웨이 ‘인버터 제습기청정기(A PD-1015B)’의 경우 파워제습, 절전제습, 청정제습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 파워제습의 경우 하루 최대 13.2L의 제습이 가능하며 스스로 알아서 최적의 습도(40~60%)로 빠르게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청호나이스의 ‘2 in 1 제습기청정기(AD150)’는 1일 제습용량이 최대 17.8L이며 실내 공기오염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상태에 따라 무드램프로 표시해 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실내 오염도를 알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홈쇼핑 모바일앱 이용자 3년 연속 ‘업계 1위’

홈쇼핑 모바일앱이 순이용자수에서 3년째 업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모바일퍼스트’ 전략을 통해 모바일 주문 비중이 지난 1·4분기 기준으로 82%를 넘어서는 등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다.

8일 홈쇼핑에 따르면 웹사이트 순위 분석업체 코리아클릭이 5월 기준으로 발표한 모바일 앱 자사 순이용자 수 순위에서 홈쇼핑이 홈쇼핑업계 1위를 기록했다. 홈쇼핑은 2015년 5월부터 선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TV홈쇼핑, 소셜커머스 등까지 포함한

종합 순위에선 11번가,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에 이어 6위에 올랐다.

홈쇼핑은 2017년 7월부터 모바일 전용 방송 서비스인 ‘모바일 2채널’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이 채널은 TV쇼핑과 동일한 방식으로 쇼호스트의 안내를 통해 TV상품 외 다른 상품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홈쇼핑만의 특징인 10% 할인과 10% 적립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모바일 특가샵’도 열고 운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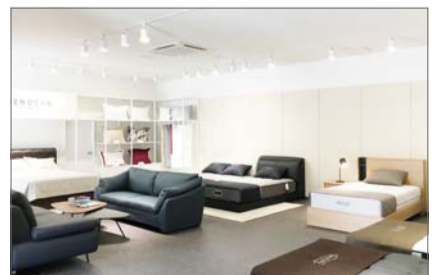
시몬스침대 ‘테크니컬 존’ 갖춘 시흥대야점 오픈

시몬스침대는 경기 시흥시에 ‘시흥대야점’을 새로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시몬스 시흥대야점은 지하철서해선 시흥대야역 인근 시흥 가구 단지 내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곳에선 시몬스 침대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를 비롯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침대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 베딩과 퍼니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시몬스 고유의 포켓스프링과 최고급내장재들이 갤러리의아트피스처럼 전시돼 있는 ‘테크니컬 존(Technical Zone)’도 마련했다.

시몬스 침대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시몬스침대 경기 시흥 대야점 내부 전경.

‘뷰티레스트’는 시몬스 고유의 기술력인 포켓스프링을 적용한 대표 제품이다

시몬스 침대는 시흥대야점 오픈을 기념해 해당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준다. /김승호 기자

“체험에 프리미엄을 엮다” 달라진 가전양판장 新풍속도

롯데하이마트

온오프 결합 매장 ‘옵니스토어’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체험·휴식 초점 맞춘 ‘파워센터’

1300여 권의 서적과 브랜드별 커피머신 그리고 안락한 휴식 공간까지. 가전 양판장이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던 공간을 넘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맞춤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프라이스킹 등 가전 양판장은 체험존을 늘리고, 프리미엄 매장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점별 특색에 맞춘 리뉴얼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단순 판매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28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하이마트 수원롯데몰점을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인 ‘옵니스토어’로 새단장해 선보였다. 앞서 개점한 구리점, 주안점에 이은 3번째 옵니스토어이자, 첫 번째 ‘숍인숍’ 옵니스토어다.

‘라이프 스타일 매장’을 표방하는 옵니스토어는 제품 진열과 공간 활용 등에서 기존 매장 차별점을 둔다. 제품이 뽀뽀



롯데하이마트의 온오프라인 결합형 매장 ‘옵니스토어’ 수원롯데몰점 매장.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일산 파워센터점’의 계절가전·건강가전 코너. /전자랜드프라이스킹

이 늘어서 있던 기존 매장과 달리, 옵니스토어는 프리미엄 가전 중심의 진열로 한층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전시관을 방불케 하는 매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옵니존’이다. 옵니존에 마련된 태블릿 PC에서는 중저가 제품을 포함한 11만 여개에 이르는 제품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구매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해, 매출 증대와 함께 오프라인 매장의 트래픽 문제까지 해소했다. 매장에 마련된 휴게 공간과 제품

체험이 가능한 프리미엄 전시 공간은 기존 가전 매장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일조한다.

2호점인 주안점의 경우, 1층 전체를 커피숍으로 꾸며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층에 마련된 45평 규모의 휴게 공간에는 인문·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 3000여 권이 비치돼 있으며, 독서와 간단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다.

프리미엄 전문관을 체험형으로 설치해 각종 가전 제품을 고객이 직접 시연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건강기기와 미용기기 전문관인 ‘헬스앤뷰티존’을 비롯해 영국 다이슨사(DYSON)의 제품을 모은 ‘다이슨관’, 가전업계의 새 트렌드 ‘빌트인존’, ‘사물인터넷존’ 등이 있다. 또 공기청정기 제품의 경우, 브랜드별로 모아 별도의 전문관으로 구성했다.

전자랜드는 고객 체험·휴식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춘 ‘파워센터’ 개점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에 ‘파워센터 남원점’을 개점했다. 이는 올해 6번째 선보이는 파워센터다.

서울 용산 본점을 시작으로 지역 거점 매장을 파워센터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전자랜드는 올해 30개 매장을 파워센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랜드 파워센터는 고객의 체험·휴식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점한 4번째 프리미엄 매장인 파워센터 원주점의 경우, 매장 곳곳에 테이블과 소파를 배치해 고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 지점 역시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했다.

프리미엄을 강조한 파워센터인 만큼 브랜드관 구성에도 힘을 썼다. 2층에는 삼성전자 브랜드숍이 들어섰고, 4층에는 가전 양판점 최초로 SK매직 브랜드관이 마련됐다.

고객이 쉽고 빠르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 구성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브랜드를 입점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는 점도 특징이다. 모바일존, 건강가전존, TV존, 계절가전존, 주방가전존, IT존, 음향가전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가전존에서는 전자랜드 PB 브랜드인 아나 안마의자, 마사지기뿐만 아니라 각종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롯데마트, 베트남 고밥점에 中企제품 매장 오픈

(호치민 소재)

부산 中企 13개사 제품으로 구성
현지 바이어 서류심사 통해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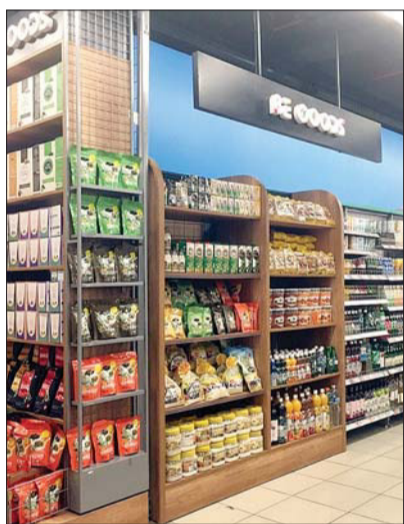
롯데마트가 베트남 현지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열고 베트남 진출 지원에 앞장선다.

롯데마트는 지난 6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시와 손잡고 베트남 호치민 롯데마트 고밥점(Go Vap)에 부산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인 ‘BE GOODS by busan’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세안지역의 고성장 국가인 베트남에서 부산 중소기업 소비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BE GOODS by busan’은 과채음료와 어묵을 비롯, 프라이팬, 탈모방지 샴푸 등 가공냉동식품부터 주방생활용품, 화장품까지 베트남 현지 가격경쟁력과 시장적합도, 제품성 등을 기준으로 롯데마트 MD(상품개발자)와 베트남 현지 바이어의 서류심사-실물평가를 통해 선정한 부산 우수 중소기업 13개사 70여개 제품으로 구성된 전용매장이다.

롯데마트는 매장 활성화를 위해 온·



롯데마트 고밥점. /롯데마트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3~6개월간 기업 및 상품군별 매출 등 성과를 기반으로 상품 In-out을 진행하고, 상품 품평회와 인터뷰를 상시 실시하여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추가로 선발해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여기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지 매장 운영 지원 및 제반 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업체들에게 베트남 현지 대형 유통망에 대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베트남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오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롯데마트 호치민 남사이공점에서는 전국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인 ‘BE GOODS’를 오픈 한 것.

베트남 현지에서 7개월간 전용매장을 운영한 결과, 전국 중소기업 23개사의 196개 우수 상품이 판매되었으며 총 2억 4000만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상품 입점 기회제공과 해외 판로개척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원현 롯데마트 대외협력부문장은 “현지 맞춤형 전략으로 베트남 대표 대형마트로 자리잡은 롯데마트는 새롭게 오픈한 ‘BE GOODS by busan’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제품이 ‘값 싸고 질 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베트남 현지에서 1300여개의 PB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중·소형슈퍼 등을 포함해 2020년까지 매장 수를 87개로 늘릴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 계산대 의자 10년 만에 전면교체

현장근무 임직원 목소리 적극 반영

이마트 계산대 의자가 전면 교체된다. 이마트는 오는 16일부터 의정부점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점포의 계산대 의자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개선된 계산대 의자는 높이가 77cm로 기존 65cm에 비해 20% 가량 높아졌으며, 등받이 높이는 23cm에서 37cm로 약 60% 높아졌다.

이번 개선은 임직원 건의함 ‘사원의 소리’를 통해 현장 근무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기존 허리 높이의 등받이를 대폭 상향해 휴게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들이 카트에 싣고 지나가는 상품이 계산대 직원들 등에 치이는 일도 없도록 등받이 크기를 확대했다.

이마트 계산대 의자는 2008년 처음 도입됐다. 2008년 8월 노동부에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대형마트에 계산대 의자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마트 계산대 의자 개선. /이마트

이후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10년간 기존 의자의 형태가 유지되었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마트는 이 외에도 점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마트는 임직원 보호를 위해 ‘이케어’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했으며, 2017년에는 ‘이케어 2.0’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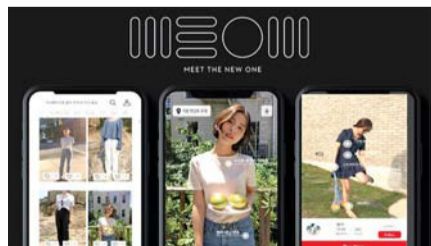
이케어 2.0은 직원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마트가 시행한 제도로 악성 컴플레인 사전 차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제도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 인플루언서 플랫폼 ‘네온’ 오픈

SNS 인플루언서들 한 곳에서 만나

롯데백화점이 9일 유명 SNS 인플루언서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인플루언서 플랫폼’인 ‘네온(NEON)’을 오픈한다. ‘네온’은 롯데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인플루언서의 일상과 컨텐츠를 고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한 쇼핑 플랫폼이다.

‘네온’은 ‘뉴원(NEWONE)’의 줄임말이자 그리스어로 ‘새롭다’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로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12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유통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구축한 ‘인플루언



‘네온’ 모바일 웹사이트 사진. /롯데백화점

서커머스 프로젝트’에서 제작했다.

‘네온’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배송, 서비스 등의 문제를 롯데백화점의 다양한 유통 노하우 및 인프라를 통해 해결하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계획했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백 ‘고메이494’ 유기농 목초우유 출시

프리미엄 식재료 콘텐츠 확대 예정

갤러리아백화점이 식품 자체 브랜드(PB)인 ‘고메이494’에서 유기농 목초우유 신제품을 출시, 프리미엄 식재료 콘텐츠를 한층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고메이494는 동물복지 인증 목장에서 유기농 목초 사료만을 먹여 키운 소의 원유를 최적의 방식으로 살균한 제품으로, 단백질

고진한 맛이 특징이다.

원유가 생산되는 목장은 경기도 안성의 ‘송영신목장’으로, 국내에서 동물복지 제1호 인증을 받은 농장이다. 또 가공업체는 제조 공장, 설비, 개인위생 관리가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한 공장이다. 이곳에서는 원유를 72~75℃에서 15초 내외로 살균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천연 발효 식초, 조미료류, 반찬류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현대車, 버스정류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다

현대車 고객으로 구성된 '현대모터클럽' 형성 초현리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나서

현대자동차 동호회 '현대모터클럽'이 현대차와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횡성군 청원면 초현리 버스 정류장의 환경 개선 활동 '빌드 스테이션'을 실시했다.

'빌드 스테이션'은 현대차 고객으로 구성된 동호회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이 기획하고 현대차가 지원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버스정류장에서 긴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 소외지역 어린이·주민을 위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도록 버스 정류장을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횡성 초현리는 하루에 버스배차 횟수가 11회뿐인 데다 배차간격 또한 불규칙해 도착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류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이에 현대차 고객 봉사단 50명이 초현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정류장 환경 개선에 나섰다.



버스 정류장 개선 활동 중인 현대자동차 고객 봉사단 '현대모터클럽' 회원들. /현대차

현대차 고객들이 모여 만들어진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은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영화상영 ▲아파트 단지 내 안전표시 그리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 영화제 ▲긴급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기획해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교통 소외지역 버스정류장 개선 봉사는 '현대모터클럽' 이자발적으로 운영한 봉사활동으로 올해로 2회를 맞이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를 사랑하는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시상

두산연강재단이 지난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8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인 이주명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게 상금 3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수상논문 제목은 '관상동맥질환자에서 3혈관 분획혈류예비력이 갖는 예후인자로서의 의미'로 2018년 3월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간한 내과학 분야 SC I 저널인 '유리피인 하트 저널'에 게재됐다. 관상동맥 협착의 혈류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분획혈류예비력의 임상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논문이다.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은 한국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젊은 의학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정연우 기자 yw964@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오른쪽)이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두산연강학술상 의학논문 부문 시상식에 참가해 수상자인 이주명 조교수(가운데)와 이왕종 신문 '청년 의사' 발행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그룹



8일 오전 맥심 플랜트에서 열린 맥심 티오피 모델 원빈과 함께하는 '티오피 시그니처 미팅'에서 원빈과 소비자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동서식품 티오피 '출시 10주년' 팝업스토어 성료

동서식품은 프리미엄 커피음료 '맥심 티오피(Maxim T.O.P)' 출시 10주년을 맞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한남동의 '맥심 플랜트(Maxim Plant)'에서 운영한 '맥심 티오피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8일 밝혔다. 맥심 티오피는 100%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프리미엄 커피음료로 첫

선을 보인 지 10년만에 연 매출액 1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메가 브랜드다. 동서식품은 10년동안 변함없이 맥심 티오피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맥심 티오피를 더 특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맥심 티오피 팝업스토어를 마련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기업은행-비씨카드

소상공인 지원 동반자금융 업무협약

기업은행과 비씨카드가 지난 6일 을지로 본점에서 IBK 동반자금융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은 휴일에도 카드매출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3분기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매일 카드매출 대금을 입금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빠듯한 자금 사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오늘의 운세 7월 9일 (음 5월 28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60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마음을 굳건하게 가져야 한다. 72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84년생 강을 건넜다고 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 소** 49년생 감정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된다. 61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73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셔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8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 호랑이** 50년생 가정의 화목이 성공의 중요 요소. 62년생 강 씨 귀인으로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74년생 길 떠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86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하자.
- 토끼** 51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언행에 주의하라. 63년생 넓게 바라보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보인다. 75년생 명석이 같았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 87년생 김칫국부터 마시다가는 낭패를 본다.
- 원숭이** 52년생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 64년생 뜻밖의 초대가 있겠으나 당신을 유혹하는 것이니 주의. 76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려고 하면 원망을 듣게 된다. 88년생 영원한 친구는 존재하지 않으니 조심.
- 뱀** 53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도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 신경 쓰자. 77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89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 말** 54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법. 66년생 자손이 큰 상을 받아 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78년생 가족과 대화중에 의견대립이 생길 수 있다. 90년생 의욕이 앞선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한다.
- 양** 55년생 글치 아픈 일은 배우자와 상의해서 처리하면 잘 해결. 67년생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산뜻하다. 79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 91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 원숭이** 56년생 속이 상해도 자식이나 참아야 한다. 6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니 조심. 80년생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덜 힘들다는 걸 명심. 92년생 말미 친구가 거래의 걸림돌이 되니 유의하자.
- 닭** 57년생 아랫사람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69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81년생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큰 조력자이다. 93년생 둘다리도 두드러보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 개** 58년생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실수가 없다. 70년생 하니를 투자해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이다. 82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따져야 하는 날. 94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 데가 머물 곳은 아니니 실망스럽다.
- 돼지** 59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생각. 71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83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마음이 울적. 95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김상회의 四季

방생(放生)의 의미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7월의 1일 첫째 일요일 법회를 방생법회로 진행했다. 곧 다가올 백중기도 입재도 시작될 터 방생법회를 병행 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장마가 시작된 터라 쏟아지는 빗줄기로 인해 걱정도 되었지만은 오히려 불어오는 풍성한 물줄기 속으로 물고기를 보내주니 가족이나 물 만난 메기들이 기운차게 물속으로 헤엄쳐 간다. 소규모의 방생 재였지만 삼십 명 넘게 오신 신도님들과 자애와 신심이 넘치는 귀중한 시간을 나누면서 보람과 감회 역시 새로웠다. 방생의 의미는 잘 알려져 있듯 잡힌 물고기나 새 등 약한 짐승이나 동물의 산 것들을 강물이나 산과 들에 다시 놓아 살려 주는 일을 말한다. 불교의 오계 중 첫째 계율인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라는 계율의 적극적 실천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불교전통의 국가에서는 예로부터 사찰을 비롯하여 많은 불교도들이 방생 제나 방생기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월 보름을 전후하여 각 사찰에서는 방생기도를 열고 봉행하고 있다. 개개인 신자들도 가족 중에 생일이 있거나 하면 강가나 바닷가 등 가까운 물가에 물고기들을 방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매나 조 등 새들이 즐겨먹는 곡식들을 산이나 들에 뿌려서 모이를 먹도록 하는데 이 역시 방생의 한 방편인 것이다. 방생을 한답시고 외래종 물고기들을 사서 아무 물에나 가서 놓아주는 것은 오히려 생태계의 교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 자기가 살던 곳의 물과 다른 물에서는 오히려 물고기들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또 이러한 방생 수요를 위해 어부들이 일부러 더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먹기 위해 팔리지 못하면 어시장 내에서도 오래 살지 못하고 죽기 마련인이라 물고기의 원래 고향인 강물이나 바다로 보내주는 것은 종교적 취지나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마땅한 일이라 본다. 또한 윤회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방생하여 놓아준 물고기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명을 마치고는 부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 부처님 가르침이나 여러 성인의 가르침에 인연이 되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와 발원을 해주니 분명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최소한 육류나 어류 등 산 생명을 즐겨 먹는 생각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으며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생명의 소중함은 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명존중의 실천인 것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만큼 가장 값있고 훌륭한 일이 어디 또 있으랴?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4	5			
	6					8		
		2	5	3				
1			4	9	3			8
9	1				2			
5			8	2	6			1
		4	9	1				
2					5			
	4				1	8		

					8			1
								5
			6	1		4		9
		4	1			6		
		2			4			9
7				8				1
		3	8					6
	8	6			2			3
2				6	9	1		5

스도쿠 정답								
6	8	1	5	2	9	4	7	3
4	9	5	2	8	7	6	3	1
9	2	3	1	6	4	5	8	7
1	6	9	2	8	4	7	5	3
5	7	2	9	7	1	8	6	4
8	4	7	6	3	5	9	1	2
2	9	6	4	5	2	1	7	8
7	1	8	7	4	6	2	9	5
3	5	7	8	1	9	4	7	6
5	8	1	6	9	4	2	7	3
2	4	6	2	5	7	9	8	1
9	7	2	1	4	8	7	6	5
4	1	5	9	8	2	6	4	3
6	4	8	7	6	5	2	1	9
7	9	4	6	1	3	5	8	2
2	6	7	5	1	9	8	4	3
8	5	4	7	2	6	1	9	3
1	9	4	8	7	4	5	2	6

문제 제공= 보너스

죽지 않는 '실패의 유령'



홍경안 의
시시일과

비엔날레를 비롯해 국공립 미술관 기획전 등, 동시대 치러지는 대규모 미술 전시들은 채집된 역사를 포함해 의미 있는 자료와 오브제들을 하나의 공간 속에 뒤섞어 놓는다. 여기엔 예술작품이라 정의되지 않았지만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된 것과 현실을 뒷받침으로 한 제의된 각종 사물 및 제안된 상상까지 포함된다.

전문 전시기획자라면 작품을 비교, 탈주, 복원, 충돌로 언급하고, 어긋남과 마주하기 등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제시한다. 학제 간 장르 간 경계 넘기로 미학적 간극을 보여주며, 다층적 언어와 불특정 조건의 개입을 허락해 하나의 문맥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문맥은 새로운 미적 태도와 형식을 낳는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설적인 큐레이터인 '하랄트 제만'의 개념으로 해석하자면 '조직화된 혼돈'이다. 즉, 서로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잡종의 과정들이 즉각적으로 생성되거나 소멸되고, 전시라는 틀 안에서 예술과 비예술, 실제와 비실체가 얽히고설키 자유로운 미적 시도를 일으키는 상태라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짜서 이루거나 얽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 구축한 체계는 과거의 전시방식과 차별을 유도한다. 가치 있는 미술의 방향을 제시하며, 그 방향위에서 이전과 다른 예술생태계는 정립된다. 우리가 간과하던 논쟁, 논의의 대상이 비로소 의식의 일부로 표면화되기도 한다.

물론 전시를 통한 통상의 생경한 전개와 과격적인 작품으로 인한 논란이 간혹 대두되기도 하지만, 그 논란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성이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굵직한 그 어떤 전시에서도 예술형식과 방법론에서의 미래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개념 자체는 이해하는 반면, 반드시 구조가 개념을 뒷받침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전시구조는 나후되어 있다. 전시가 시각적 감흥에 멈추는 가장 큰 배경이자 사실상 불사의 유령을 소환하는 이유다. 이런 현상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받아 치르는 행사에서 유독 심하다. 주변의 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기획자들을 힘들게 한다.

전시기획자들은 하나의 전시에 침투하는 기관, 지역, 대중, 미술계 내부라는 다양한 시선과 맞닥뜨린다. 돈을 대는 관의 입장을 헤아려야 하고(그중에서도

관객 수), 행사가 치러지는 지역의 눈치(지역작가 소외론)도 봐야 한다. 번번력 있는 주제와 그에 맞는 작가를 참여시켜야 하면서도, 미술계 내의 반응(답론형성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당대 전시들이 철학 없이 부표처럼 흔들리는 원인에는 이처럼 전시를 전시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끼어들기와 명분 희박한 관여가 놓여 있다. 소위 지역일수록 그 참견의 농도는 진하다.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

여기에 과대 포장된 기획자들의 실력과 일부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도 개념이 단지 논리적 분별에 그치는 원인이다. 이들에게 전시의 입신의 도구요, 기획은 출세의 설계다. 그러나 신념 따윈 대하기 어렵다. 이밖에도 서구 시선에서의 오만한 세계주의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됨에도 자각 없는 환경, 시도를 금기시하는 행정 역시 전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배경이다.

문제는 미술의 순수성은 그저 욕망의 알리바이이기에 기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당장 변화하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 현재, 아니 다가올 전시들을 기념비적인 것들과 대조해 보라. 깊이 보면 드러나고 가까이하면 읽힌다.

/미술평론가·칼럼니스트



국토부-LH, 도시재생뉴딜 UCC 공모전 시상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캠퍼스D(Campus D)에서 도시재생뉴딜 UCC 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 시상식을 개최했다. 8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 일자리' 등 4개 주제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인 '지역주민 주도의 거버넌스'를 표현한 윤지은 씨의 '까치의 소식'이 수상했다. /국토부



삼성전자, '카페 休:휴'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삼성전자가 '카페 休: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취약자들에게 바리스타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지역공헌활동이다. 6일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 오픈한 카페 休:휴 아산시 5호점은 평균 나이 70세의 어르신 바리스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바리스타 양성 교육과 실습을 거쳐 바리스타로서의 제 2의 삶을 시작한다. /삼성전자

속제로 남은 中 '5G 굴기'



기지수첩
김나인 (산업부)

다가오는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중국의 굴기가 무섭다.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필두로 중국 대표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 5G 시대를 앞두고 야심의 발목을 드러내고 있다.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최소 20배, 최대 100배 빠르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을 가능케 한다. 미래의 핵심 인프라가 될 5G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약 84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현재 최대 통신 장비 업체는 중국의 화

웨이이다. 시장점유율은 29.3%에 달한다. 통신 장비 가격은 20~30% 정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6개월 이상 앞서 있다는 평을 받는다.

중국 정부도 팔을 걷어 부치고 5G 상용화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5G 기술 육성에 5000억위안(약 84조75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5G에 가장 준비된 국가 1위로 중국을 꼽은 바 있다. 내년 5G 상용화를 앞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고심하는 것도 화웨이의 기술력 때문이다. 미국 퀄컴의 스티브 몰렌코프 최고경영자(CEO)는 5G 시대가 개막되면 중국의 IT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정상권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

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4G 시대 'IT 강국'으로 스마트폰, 반도체 등으로 앞서갔지만 5G 상용화 시점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2018~2022년 5년간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다. 통신 장비와 기기가 연동되는 구조 상 장비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시장까지 중국에게 빼앗길 수 있다.

화웨이 장비 독식 우려도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적지근하기만 하다.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국내 5G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중국의 추격을 추월하고 통신 강국의 역사를 새길 기회는 5G 상용화를 위해 발을 댄 이 시점이다.

/silkn@metroseoul.co.kr



BNK경남은행,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지원

BNK경남은행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 폐장한 이후 16년 만에 다시 문을 연 광암해수욕장(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 재개장을 지원했다. 창원영업본부 한기환 상무와 BNK경남은행 창원지역본부 10명은 지난 7일 개장식이 열린 광암해수욕장을 찾아 무료 찾집을 운영했다. /경남은행

인사

◆법제처 ◇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법제국장 김창범 ◇ 고위공무원 파견 △헌법재판소 김기열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교준
인쇄인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00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안영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이수정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 TF팀장 오운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실험동물자원과장 김준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정명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정승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파견(인사교류) 이성희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기획교육실장 양찬희 △법무지원부장 이구수 △인천지역본부 부장 이용찬

◆경향신문 △논설고문 이대근 △논설주간 조호연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양권모 △조운찬 △김준기 △미디어전략실장 차준철 △전략기획실장 최병준 △문화사업국장

박구재 △후마니타스연구소장 박용재 △편집국 선임기자 이기환 △김종훈 △출판국 주간경향편집위원 강기성

부음

▲ 오수복씨 별세, 한정원·한지원(LGCNS 부장)·한지연(상암중학교 교사)·한희경(동안고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이석기(교보생명 경영지원실장·부사장)·장순민씨 장모상 = 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동국대병원 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31-961-9400)

▲ 김정순씨 별세, 조성원(명지대 농구부 감독)·한국여자농구연맹 재정위원)씨 장모상 = 7일 오후,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40)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회통합계층 자녀 영재교육

한국지엠한마음재단이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통합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영재육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지엠재단은 인천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사회통합계층(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조손·다문화 가정) 자녀 중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잠재성이 확인된 초등학교 100명을 선발해 지난 3월부터 격주 단위로 영재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국지엠

“전년과 출제경향·방식 동일... 영어 절대평가 영향 지속”

4개월여 남은 수능, 대비책은?

평가원 EBS 교재·강의 70% 연계 영어외 타 영역 반영비중 제각각 한국사 정시 1등급자 가산점 부여 수시 수능최저 3~4등급 내 ‘만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5일 전년과 같은 출제경향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4개월여를 앞둔 수능이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되지만, 지난해 첫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 영어의 영향이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대학별 영어 이외 타 과목 비중이 제각기 달리 변화되면서 대학별 모집요강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8일 공개한 2019학년도 수능 시험 세부계획에 따르면,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8월 23일~9월 7일까지 12일간 이뤄지고, 수능 시험은 11월 15일, 성적표는 12월 5일 통지된다.

수능 출제경향과 방식은 지난해와 동

2019학년도 수능 주요 일정

- 7월8일(일) 수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
- 8월23일(목)~9월7일(금) 원서교부, 접수 및 변경
- 11월15일(목) 시험일
- 11월15일(목)~11월19일(월)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 11월26일(월) 정답 확정
- 11월16일(금)~12월5일(수) 채점
- 12월5일(수) 성적 통지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일하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시험은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한다”고 밝혔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9등급제 절대평가로 치러지고, 두 영역 성적은 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지난해 첫 절대평가로 바뀐 수능 영어는 올해도 절대평가로 치러짐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타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다. 예컨대 고려대 자연계의 경우 2017학년도까지 국어(20%), 수학기형(30%), 영어(20%), 과탐(30%)의 반영비율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영어를 총점에서 배제하고 등급별 감점제로 바꾼 대신, 국어(31.3%), 수학기형(37.5%), 과탐(31.3%)로 특히 수학기형 비율을 높였다. 반면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우 영어 비중을 줄이고 수학기형과 과학탐구 반영 비율을 똑같이 올렸다. 결국 수능 영어 절대평가 영향에 따라 대학마다 타 영역 반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이전의 입시 전략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영어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타 영역의 비중이 증가해 과거와 다른 입시 선택이 필요하게 됐다”며 “특히 최근까지 자연계 입시에서 수학과 과학 반영 비중이 비슷할 경우 과학의 높은 점수로 수학의 부족한 점수를 상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사영역을 미응시할 경우 전체 성적이 무효 처리되므로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특히 한국사의 경우 평이하게 출제될 전망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한국사는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사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논술전형에서 한국사 최소 등급을 지정하는데, 연세대는 등급,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 등은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한국사는 정시모집에서도 감점을 통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다수 대학은 정시에서 3~4등급까지 만점을 준다. 특히 경희대처럼 감점·가산점이 아니라 수능 총점에 반영비율로 반영하는 경우 비중은 더 높아진다. 아울러 숭실대·상명대·성신여대 등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의 경우 한국사 1등급자에 가산점을 주고 있으므로 대학별 모집요강을 파악해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머지 국어, 수학기형·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모두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표기된다.

EBS 교재·강의 연계율은 전년도처럼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출제한다.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다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북 포항 지진으로 시험일이 연기돼 혼란이 일었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지진 등 천재지변 등에 대비해 예비문항도 만들기로 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일~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교내 체조무용실에서 열린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 주최 제20회 바롬국제프로그램(BIP: Bahrom International Program)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K팝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외국인 학생·교수 K-팝댄스에 ‘매료’

‘바롬국제프로그램’ 참가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교내 체조무용실에서 열린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 주최 제20회 바롬국제프로그램(BIP: Bahrom International Program)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이 K팝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서울여대 BIP는 매년 여름방학 중 4주

동안 미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교류대학 학생들과 서울여대 교환학생 파견 예정 학생들이 서울여대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서 이들 외국인 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의 역사와 경제, 종교, 문화 언어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태권도 체험, 전주한옥마을 답사 등 체험학습에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조희연, 고교생들과 영화 ‘히스토리’ 관람

일본군 위안부 영화...관람후 토론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여고생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실화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학생들과 역사 토론을 벌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후 1시부터 대한극장에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행사를 운영하면서, 조 교육감이 무학여고 학생 200여 명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실화를 다룬 영화 ‘히스토리’를 관람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정의를 세우다’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히스토리를 제작한 민규동 감독도 함께한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영화 히스토리는 1992년~1998년까지 6년 동안 홀로 일본 정부에 맞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중 유일하게 일본이 일본제국시대의 잘못을 일부 인정한 재판을 다루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하는 무학여고 학생들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 회복 등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참여해왔다.

/한용수 기자

중소기업 사원, 9년 일해야 연봉 두배

잡코리아 연봉통계 데이터 사원급 평균 연봉 2976만원

올해 중소기업 사원급 직원의 평균 연봉은 297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봉이 두 배가 되기까지는 약 9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잡코리아가 자사 사이트에 직장인들이 직접 등록한 연봉통계 데이터 287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사원급 직장인 평균 연봉은 29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경력은 평균 2.4년이었다.

직급별 연봉을 보면, 주임급 직장인 연봉 평균은 3382만원으로 사원급보다 406만원 높았고, 이들의 평균 경력연차는 3.2년이었다. 이어 대리급(4024만원·5.5년



잡코리아 연봉통계 데이터분석.

/자료=잡코리아

차), 과장급(5014만원·9.1년차), 차장급(5933만원·11.8년차), 부장급(7682만원·16.2년차) 순으로 연봉이 올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사원급 직장인의

평균 연봉(2976만원)이 두 배(5952만원)가 되는 시점은 차장급(5933만원)과 부장급(7682만원) 사이로, 사원급에서 약 9년이 지나야 되는 셈이다.

/한용수 기자



경희사이버대와 제51보병사단이 지난 4일 제51보병사단 사령부에서 학·군 협약을 체결한 후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제51보병사단 입학금 면제 등 학·군 협약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4일 제51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제51보병사단과 학·군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적·물적 교류 지원을 약속했으며, 제51보병사단 간부와 군가족들에게 경희사이버대 학부 입학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과 입학금 면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제51사단장은 “경희사이버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 있는 지식의 세계로 한 발 더 나아가며, 강군 기반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2018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수능·내신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소개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한다.

/한용수 기자

교육부

고졸 취업자 교육과정 4년제 국립대로 확대

교육부가 고졸 취업자를 위한 ‘후학습자 과정’을 2022년까지 모든 4년제 국립대에 도입하고 특성화고에도 혁신학교 모델을 적용하는 등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최종안을 7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가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형 특성화고’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전공 간 이동이 쉽도록 ‘직업계고 학점제’도 도입한다.

2022년까지 34개 전체 4년제 국립대가 후학습자 전담과정을 개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간절한 맞벌이가정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일과 육아,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도록
열심히 뛰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바람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엄마들의 꿈, KB와 함께 이루다] Dreaming School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육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 까지 초등 돌봄교실(1,700개)과 국공립 유치원(250개 학급) 신·증설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마음 편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책

단편으로 경험하는 '페미니즘'의 변화

'페미니즘'은 더 '핫'해지고 있다. 또 건강해지고 있다고 본다. 성희롱·성폭행 폭로 '미투운동' 뿐 아니라, 긴 역사 속에서 '여성'이라는 강제당했던 억압들, 이미지들, 역할과 관계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더 디테일하게 풀어놓으려는 이야기꾼들도 많아졌다. 단순히 '주의', '주장'이 아닌, 일상 속 여성들이 겪는 부자연스러운, 부당하게 느끼지는 다양한 측면들을 '싸움'이 아닌 '이해'를 위해 용기 내어 말하는 이들도 있다. 많은 '엄마-딸' 관계가 가부장제 안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관계로 꼬여있는지를 소소하게, 담백하게 풀어낸 책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도리스 레싱(1919~2013년)의 소설을 읽는다는 건 페미니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도리스 레싱은 아프리카, 1·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결혼제도·모성·가정, 계급사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등 20세기 사회, 문화, 정치 문제를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번역·출간된 레싱의 단편선 '19호실



도리스 레싱 단편선: 19호실로 가다

도리스 레싱 지음/김승욱 옮김/문예출판사

로 가다'에는 작가의 초기 단편소설들이 담겨 있다. 전통적인 사회질서와 체계가 붕괴된 1960년대 전후 유럽사회의 단면을 포착하며, 사회로부터의 억압, 개인의 일상과 욕망, 그리고 저항을 그려냈다. 특히 당대의 중년 여성에 초점을 맞춰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이미지'에 맞게 역할해 나가야하면서도,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소설 속 인물들의 갈등과 분노, 한계들이 나타나있다. 그럼에도 소설은 중년 여성이 지닌 연륜과 힘을 긍정하며, 대체로 온 여성간의 연대로 희망을 이야기한다. 384쪽, 1만3800원. /오진희 기자 valere@

왜 유독 그 가게만 잘될까

현성운 지음/다산북스



이 책에는 저자가 16년간 외식업에 종사하며 다져온 자신만의 족으로 장사 잘되는 가게와 안되는 가게를 구별해내며, 고객이 줄을 서는 가게의 숨겨진 서비스와 공간의 비밀을 알려준다. '맛은 기본이며, 운영 시스템으로 승부하라'는 저자는 '조스떡볶이', '바르다 김선생' 등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 몸담으며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교육시킨 (주)외식인의 대표다. 268쪽, 1만5000원.

과학 같은 소리하네

데이브 레베틴 지음/이영아 옮김/더센트



이 책은 반과학적 정치인들의 조작과 왜곡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려고 "진짜 강간이라면 임신할 리 없다"고 말한 미국 전 하원의원,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쓴 트럼프 대통령까지. 저자는 가짜 과학을 퍼트리며 세상을 속이려는 정치인들에 넘어가지 말고, "인류가 꾸준히 진보하려면 다 함께 일어나 반과학적 통치에 대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0쪽, 1만5000원.

내게 무해한 사람

최은영 지음/문학동네



'쇼코의 출간' 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최은영의 두번째 소설집이다. 이 책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생각을 바탕으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소설 속 주인공은 지난 시절을 낭만화하지도, 자기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도 않는다. 사랑했지만 욕심과 위선으로 이별하게 된 경험, 이십대를 공유했지만 지금은 헤어진 이들에 대한 회상, 가장장적 분위기에 자란 두 여자아이의 이야기 등 다양한 관계, 특히 여성들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다. 328쪽, 1만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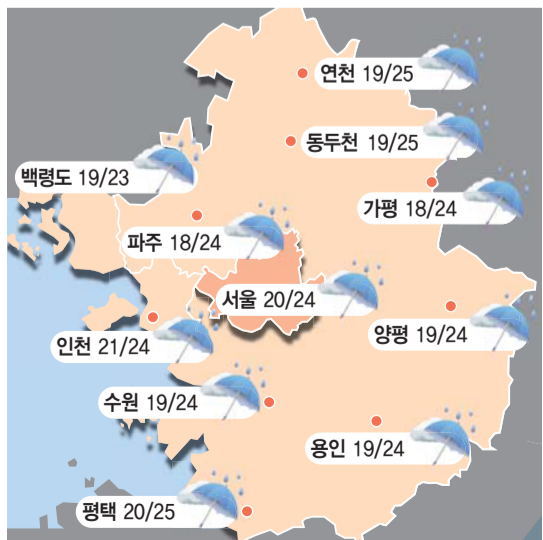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8 | 해짐 / 19:56

7월 9일
음력 : 5월 26일

수도권 날씨
24~2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프랑스 vs 벨기에 | 잉글랜드 vs 크로아티아

전통 강호 vs 신흥 강자 '맞대결'

잉글랜드·프랑스, 수십년 전 우승 벨기에·크로아티아, 첫 우승 노려

크로아티아가 러시아와 8강전에서 승부차기 우승을 끝으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월드컵 4강 진출국이 모두 가려졌다.

유럽 전통 강호 프랑스와 잉글랜드, 떠오르는 별 벨기에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을 놓고 다툰다.

FIFA 랭킹 7위 프랑스와 3위 벨기에는 오는 11일 오전 3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4강 첫 대결을 펼친다.

양 팀은 2000년 이후 총 5번 겨뤘다. 벨기에가 2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가장 최근에 치렀던 경기는 2015년 6월에 열린 친선경기로, 벨기에가 4-3으로 이겼다.

프랑스는 젊은 피를 앞세워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제 2의 '아트

2018 러시아월드컵 4강 경기 일정 (한국시간 기준)

7월 11일(수)
오전 3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
프랑스 vs 벨기에

7월 12일(목)
오전 3시
루즈니키 스타디움
크로아티아 vs 잉글랜드

연합뉴스

사커' 부활을 노리고 있다. 프랑스의 막강화력을 보면 우승 후보로 점쳐진다.

떠오르는 신인 킬리안 음바페를 비롯해 은골로 캉테, 안토니 그리즈만, 올리버 지루, 사무엘 움티니, 폴 포그바 등 유수 유럽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이다.

유럽의 떠오르는 신성 벨기에는 사상 첫 월드컵 결승행을 노리고 있다. 골득점력은 예선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예선전 로멜루 루카쿠는 11골, 에당 자르르는 6골, 드리스메르텐스와 토마스 피니어는 5골을 넣어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다. 문제는 이선수들이 기량이 예사롭지 않다. 베테랑 뱅상 콤파니도 팀 중심을 잡고 있어 이번 프랑스전에서 화려한 골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팀이다.

FIFA 랭킹 20위 크로아티아와 12

위 잉글랜드는 12일 오전 3시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4강전을 치른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사상 두 번째로 준결승에 오른 크로아티아는 20년 전 프랑스에 1-2로 패배, 결승 진출이 좌절된 바 있다. 크로아티아는 이번 대회 최대 복병으로 꼽히는 팀으로 덴마크와 러시아를 꺾고 4강 신화 재현을 꿈꾸고 있다. 루카모드리치, 마리오 만주키치 등을 앞세워 세계 축구사에 '사건'으로 기록될 성적을 남기게 될지 전 세계 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잉글랜드는 1990년 이탈리아 대회 이후 28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했다. 축구종가의 월드컵 우승을 염원하는 잉글랜드 선수들은 평균 연령은 26.1세로 32개국 중에 두 번째로 젊다. 해리 케인과 애슐리 영, 제시 링가드, 마커스 래시포드 등을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괄

감한 우승을 노리고 있다. 스웨덴전에서 보여준 상대 팀의 역습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날카로운 크로스와 수비수를 허물어내는 전술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적은 잉글랜드가 앞서 있다. 두 팀은 총 7번 맞붙었는데 잉글랜드가 4승 1무 2패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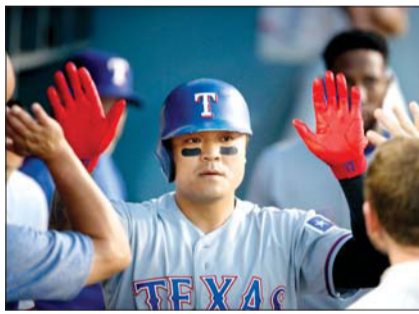
이번 준결승전은 벨기에와 크로아티아는 첫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 월드컵 우승이 간절할 수밖에 없고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마지막 우승 후 52년, 20년을 기다려온 팀이다. 4강전에서 승리한 두 팀은 16일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결승전을 치르고 3~4위 결정전은 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46경기 연속출루 추신수... 구단 신기록 앞뒤

오늘 디트로이트전 성공 땀 신기록 풀머 상대 출루율 '0'... 평정심 강조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연합뉴스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대기록 달성을 앞두고 까다로운 투수 마이클 풀머(25·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맞선다.

추신수는 지난 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코메리카파크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치며 4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홀리오 프랑코가 1993년 달성한 텍사스 구단 역대 단일시즌 최다 연속 출루 최장 기록과 타이다.

추신수가 9일 디트로이트전에서도 출루에 성공하면 '텍사스 단일시즌 최다 연

속 출루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9일 디트로이트 선발은 우완 풀머다.

추신수는 풀머와 7차례 대결해 불빛한 개도 얻지 못하고 무안타에 그쳤다. 풀머 상대 출루율이 0이다.

추신수도 풀머를 의식한다.

그는 8일 경기 뒤 델러스모닝뉴스와 인터뷰에서 "상대 선발이 무척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록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고 '평정심'을 강조했다.

추신수는 최근 맹활약으로 타율 0.294, 출루율을 0.402로 끌어올렸다. 아메리칸 리그 타격 14위, 출루율 4위다.

성적적으로는 충분히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도 가능하다. 추신수는 팬 투표에서 밀렸지만, 감독 추천으로 올스타전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 추신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제프 베니스터 텍사스 감독은 추신수의 활약에 고무됐다. 베니스터 감독은 8일 MLB닷컴과 인터뷰에서 "추신수가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선수다"라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앤트맨과 와스프' 개봉 5일만에 200만명 돌파

마블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앤트맨2)가 개봉 5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앤트맨2'는 이날 오전 누적 관객 수 217만8천235명을 기록했다.

마블 영화는 지난 10년간 '아이언맨'부

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까지 총 19편이 9천500만 명을 동원했다. '앤트맨2'가 500만 명 이상을 동원하면 마블영화는 누적 관객 1억 명을 돌파하게 된다.

'앤트맨2'는 '시빌 워'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는 앤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

허 미션과 활약을 담았다.

권상우·성동일 주연의 '탐정:리턴즈'(탐정2)는 지난 7일 기준 총 관객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개봉한 코미디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바람 바람 바람' 등을 모두 넘어선 수치다.

'탐정2'는 지난달 13일 개봉 이후 신작들의 공세에도 박스오피스 4위권을 유지하며 한 달째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으로 옮겨온 '개성공단의 일상'

문화역서울284서 기획전시
작가 10명 참여 '문화적' 해석

옛 서울역인 문화역서울284에서 '개성공단의 일상'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가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 남북 화해 모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문화적으로 해석해 볼만한 전시다. 열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정권이 바뀌기 이전인 2년 전부터 기획됐었다. "이미 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험했던 시절이었다. 개성공단이 영원히 문닫고, 그 안에서 쌓인 경험들이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참 두려웠다. 당시엔 이 전시를 과연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공간을 못 얻더라도, 무조건 하자고 중지를 모았다"(정정엽 작가)는 증언은 새삼 바뀐 남북정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개성공단은 도라산역을 넘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6km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2004년 10월 설립된 남북경제협력지구로, 공단이 설립된 후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인력과 차량이 왕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가 뒤로 밀려나고 건물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물건이 생산됐다. 이번 기획전은 이 과정을 만든 사람들을 평화를 만들어



'개성공단 북측 노동자', 유수 작가

가는 '예술가'로서 바라보고 오마주했다. 공단의 재가동의 당위, 평화와 희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개성공단을 설계했던 이들과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 섬유, 봉제, 의복, 신발 등과 같은 생산된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6개 기업의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업간체조 등 하루 일과를 데이터하고 시각이미지를 표현해냈다.

지난 6일 전시가 열린 문화역서울284를 찾았다. 정정엽 작가는 '정상 출근' 연작으로, 공단으로 출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을 쉬폰 천 위에 먹으로 그려 천정에 드리워 겹치고 흔들리게 설치한 작품을 소개했다. 또 다른 작품 '개성공단의 문'은 오래된 거울들을 조합해 공단의 열



'아리 프로젝트' 스틸컷, 김봉학프로덕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린 문을 형상화하고 있었다. 정 작가는 "어떤 자료를 보니 북한은 개성을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통일의 초석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개성의 '개'자가 바로 열릴 개자다. 이미 오래된 거울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거울은 뒷면까지 비추기 때문에 열려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 또한 오래된 것 속에서 남북이 만날 수 있다"며 "낡고 고풍스런 거울에다 리터치하듯 팔, 콩 같은 곡식을 살짝 그려넣었다. 일상적 교감을 자아내고 싶었다. 나이드신 분들은 풍요로운 느낌을 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부록작가의 '로보다방'은 북측노동자에게 제공했던 로보물자들 중 막대커피피를 음용하는 가상의 커피점이다. '로

보'란 '로보물자'에서 차용한 단어로 로동보조물자의 준말이다.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복지 물자를 일컫는 용어로, 초코파이, 봉지커피, 라면, 동태 등을 말한다. 다방 컨셉의 전시장에는 개성공단을 상징하는 미싱 테이블이 있다. 잠정중단조치 이후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측 협상가들이 마주할 협상테이블, 서울과 개성을 오고 갈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쉬어가는 테이블을 상징한다. 또한 '품질은 타협이 없다'와 같은 남북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생산표어들과 꽃문양이 합성된 자수 테이블 보가 펼쳐져 있다.

유수 작가는 공단의 남측, 북측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도라 전망대에서 바

라본 개성공단의 밤'이라는 사진은 공단 뿐 아니라 그 주변의 전경을 담담하게 전한다. '개성공단 선물'시리즈는 북측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남측 노동자들에게 건넨 사물들과 그 이야기를 육성으로 기록해 보여준다. 최원준 작가는 단편영화 '피륙의 결'로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두 여자 주인공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김봉학프로덕션의 영상, 설치 작업인 '아리 프로젝트'는 수제 축구화 장인이자 북측 노동자에 기술을 전수했던 김봉학의 일상을 통해 남북문제와 노동, 정치적 현실을 질문한다. 임흥순의 '형제봉 가는 길' 영상작업은 2016년 11월 23일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지 9개월이 지나 공단 기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진행했던 장례 퍼포먼스에 사용된 관, 만장 등 물품을 가지고 형제봉을 오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형제봉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봉우리이자 작가가 개인적으로 자주 올라 남북을 고민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개성공단의 분양, 입주, 생산, 근로자 현황과 기업들의 매출액, 총자산 등이 수치로 표현된 그래프, 개성공단의 연혁, 행정서류로 읽는 공단의 일상들이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한다. 전시는 오는 9월 2일까지.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성희롱·성폭력 미흡땐 '계약 해지'

서울시, 피해자 구제 방안 발표
전담 TF팀 구성하고 제도 정비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대처와 관련한 내부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위탁기관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대책'과 관련해 내부 제도개선 및 위탁업체 관련 사건 매뉴얼, 관련 피해 시민 지원제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내부제도 개선 ▲시 사업 수행 투자출연기관·민간위탁기관·용역 계약업체로 확대 ▲사각지대 시민 보호 '서울 #withU 프로젝트' 등 세 가지로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이처럼 조직 내부 제도 정비를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2차 피해 예방 강화에 방점이 찍

혔다. 지난 4월 신고·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조치하고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주요 보직으로도 발령받을 수 없도록 내부지침을 개정했다.

관리 책임도 부서장급(4급)→실·본부·국장(3급 이상)까지 확대했다. 또, 피해자-가해자가 퇴직시까지 동일업무,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전산 시스템' 개선도 완료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제보할 수 있도록 개선된 내부 온라인 신고게시판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의 전담 인력풀을 가동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반기별로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최우수 1, 우수 2)를 선정해 시상·포상할 계획이다.

시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는 이번엔 발표한 기준을 7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

중이다. 시는 '민간위탁 표준협약서'를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지기로 했다.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업체·기관은 "성희롱·성폭력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2차 피해를 방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도 반드시 제출·이행해야 한다.

일반용역 계약업체를 심사할 때 직장 내 성폭력 등으로 처벌(과태료 이상의 처분 또는 벌금 이상)받은 적이 있는 업체에는 감점(최대 5점)이 주어진다. 용역업체 심사 기준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일반시민을 위한 '서울 #WithU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한다. 이는 박원순시장의 민선7기 핵심공약을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지원하는 것이 큰 틀이다. /오진희 기자



'DMZ 평화통일대장정' 스타트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제6회 DMZ 평화통일대장정' 발대식에서 대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120여 명의 대학생들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파주에 이르는 휴전선 길 155마일(350km)을 14박 15일간 걸을 예정이다. /연철뉴스

박원순, 싱가포르서 '리관유 세계도시상'

서울의 도시재생·혁신 직접 소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8일 '세계도시정상회의(WCS)'에 참석, '리관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도시에 주어지는 상으로, '도시행정의 노벨상'이라 불린다. 박 시장은 이날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 마련된 '서울시 홍보부스'를 찾아, 서울의 도시재생과 혁신에 대해 직접 소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5분(현지시간) 마리나베이샌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관유 세계도시상' 역대 수상도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2010년 신설된 이상의 역대 수상도시로는 스페인 빌바오(2010), 미국 뉴욕(2012), 중국 쑤저우(2014), 콜롬비아 메데인(2016)이 있다.

이번엔 서울이 수상도시가 되면서,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국제적 위상을 갖춘



경제·문화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여의도, 용산 등의 도시계획 구상을 소개했다. 또, 2030서울 플랜, 원전하나줄이기 같이 시민참여가 동력인 핵심

정책과 시민참여예산, 현장시장상, 모바일 투표 엠보팅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도 함께 설명했다.

싱가포르 전제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로렌스 워 국가개발부 장관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역대 수상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각 도시의 도시계획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페데리코 구티에레스 메데인 시장, 장 하이 쑤저우 부시장, 고트 조네 사가르두이 빌바오 부시장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오진희 기자

서울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서울시가 세계에서 인구규모로는 가장 큰 '공정무역도시'가 됐다. 지난 2012년 '공정무역도시 서울'을 선언한지 6년만의 성과다.

서울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로 공식 인증받았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공정무역도시로 인증 받은 곳은 32개국 2040개 도시(지난 1월 기준)가 있다. 대부분 인구 5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

다. 대도시는 영국 런던(870만명), 프랑스 파리(220만명) 등 소수다.

'공정무역도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정한 ▲지역의회의 지지 ▲지역매장에서의 공정무역 제품 구입 용이 ▲지역 커뮤니티내 사용 ▲홍보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등 총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는 각 국가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가별 위원회는

지역의회의 지지 등 5개 기준 충족
인구규모 980만... 세계에서 가장 커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평가를 실시해 공정무역도시를 인증한다.

서울시는 ▲공정무역 지원결의안 및 조례의결 ▲인구 2만5000명 당 1개의 공정무역 판매처 확보(약 400개) ▲지역일터와 생활공간내 공정무역공동체 선언 ▲공정무역 캠페인·홍보·교육 시민참여(70만여명) ▲공정무역위원회 구성·운영 등 위원회가 정한 5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엔 공정무역도시로 선정됐다. /오진희 기자



[산업] 김호하 형제 박찬구·박삼구 회장 경영성적 희비 04



Life

[금융]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미래먹거리 찾아 해외 영토 확장 속도 06



모닝커피 한잔 어때요? 도시의 새벽 여는 달달한 부부



카페 '커피달콤' 안정진·박은혜 부부

아침을 깨우기 위해 출근길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새벽부터 분주한 이들이 있다. 이른 시간부터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다.

지난 6일 오전 6시. 이따금 정류장에서 멈추는 버스 소리 외에는 한적한 시간 경기 시흥시 거모동 '커피달콤'에서 안정진 박은혜 부부를 만났다.

부부는 카페 문을 열자마자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러 카페에 흐를 수 있는 음악을 틀고 어제 매출 상황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커피머신을 쓰기 위한 도구들을 세척하고 늦은 저녁 마감하며 빨아 널었던 행주와 수건을 접었다. 잠시 부부는 자재여분을 확인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매장바닥을 쓸고 창문과 테이블을 닦았다.

“카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유로운 음악과 커피한잔이 먼저 생각나지만, 사실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최대한 여러 번 확인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에스프레소 첫 샷을 내려 버린 후 다음 샷을 내려 맛보던 부부에게 10분 남짓 여유가 주어졌을까. 곧바로 출근 전 커피를 마시기 위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시 피곤해 보이던 그들의 눈은 금세 밝아졌다.

◆직장생활과 쉼 그리고 카페

그들은 직장인이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전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던 그들은 이제 직장인의 마음을 꿰뚫는 카페 사장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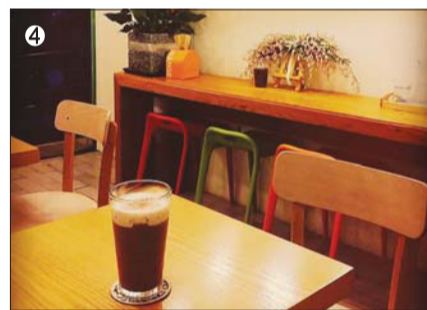
“3년 정도 다녔죠. 일과 사람 관계에 지쳐서 회사를 그만뒀어졌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 일보다 힘든 건 사람 관계죠. 그래서 더 손님들이 소소하게 요청하는 부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커피를 내리며 박은혜씨가 말했다.

카페에 머무르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스트레스 없이 손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 부부의 하루는 이전의 삶보다 바쁘다.

손님이 없는 잠깐의 여유시간에도 한 명은 매장을 정리하고, 한 명은 또 다른 메뉴 고민에 빠져있었다. 요즘 타카페의 맛있는 커피메뉴를 묻던 부부는 “최근 장미커피를 아심차게 개발해 내놓았는데, 한번 구매한 고객이 재구매를 안하는 모습을 보곤 다른 메뉴를 고민하고 시작했다”고 너스레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들은 수제청을 담고 오후에 쓸 크림을 만들었다.

최근 부부가 가장 빠져있는 분야는 ‘바코드 쿠폰’이다. 단골손님에게 제공할 서비스 쿠폰을 바코드 쿠폰으로 만들어 카톡으로 전송할 계획이다.



- ① 주방에서 주문받은 메뉴를 만들고 있는 부부.
- ② 커피달콤 외부 모습
- ③ 지난 5월 커피달콤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제청을 만들어 판매했다.
- ④, ⑤ 카페 내부 모습.

/나유리 기자

회사생활에 지쳐 카페 열어 일 고되지만 전보다 즐거워

배달앱 증가로 배달주문 많아 고객과 일대일 소통할 수 있어

3년차 운영에 단골손님 늘어 카페 찾는 손님들 행복했으면

부부는 “이전 회사생활을 할 때보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이 배는 많은 것 같지만, 이전 회사생활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고객확장배달앱

“주문이요”

스마트폰이 말했다. 최근 이들 부부에게 달라진 변화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다양한 배달 앱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해 주문을 받는 것.

부부는 “예전에는 점심을 먹고 매장에 들러 커피를 사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점심 후 사무실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매출도 배달앱을 통한 비중이 크다. 이른 오전 출근하는 직장인과 늦은 오후 학생, 아이들과 손잡고 카페를 들른 몇몇 부모를 제외하곤 카페 매장은 한가했지만 스마트폰은 쉴새 없이 울려댔다.

“아마 배달앱이 없었으면 저희는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배달앱을 이용하다 ‘카페도 있네?’하고 주문하는 손님도 있고, 매장만 들르던 손님이 배달앱을 설치해 집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배달앱은 고객과의 일대일 소통에도 한몫하고 있다. 손님이 후기를 달면 사장이 댓글을 달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사장은 손님의 불편한 부분을 바로 알수

있게 됐다. 후기와 댓글이 카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셈이다.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적어준 후기를 보면 먼저 감사하죠. 왜 안팔리는 지 모르는 경우보단 안 팔리는 이유를 알고 보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선 손님들이 큰 팁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만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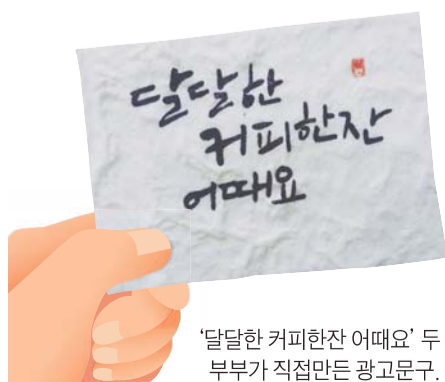
◆3년의 시간이 만든 단골들

이들 부부가 거모동에서 카페를 운영한 3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제일 큰 변화는 단골손님 증가다.

“아직도 카페가 요즈음 생겼냐고 물으며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래도 3년차가 되니 동네에 거주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카페에서 커피한잔 하시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작년까진 못 느꼈는데, 올해 (3년차)가 되고나서는 단골손님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제야 카페가 자리잡혔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부부. 소원을 물으니 “저희 부부는 커피달콤을 찾는 손님들로 행복하거든요. 이제는 손님들도 커피달콤을 찾으면서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커피달콤을 찾는 손님들의 행복을 바란다고 전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달달한 커피한잔 어때요’ 두 부부가 직접만든 광고문구.